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먼 데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지구 반 바퀴의 먼 길을 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를 흘린 콜롬비아 청년들을 항상 기억하고, 콜롬비아와의 특별한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왔고,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어 미래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 왔다"며,

"양국은 식량, 보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두케 대통령은 "방한을 하는 비행기 안에서 알바로 발렌시아 토바르 장군이 쓴 한국전 참전 회고록

을 읽었다"면서 "특별한 우호 그리고 우애의 뜻을 가지고 금번 방한을 하게 된 것을 거듭 강조한다"며 방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두케 대통령은 "한국은 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온 모범국가로, 70년 전 콜롬비아가 한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한국이 확진자 추적 관리 등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방역 물자 등 초반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콜롬비아를 '중점 방역협력국'으로 지정하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왔고,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콜롬비아와 '보건 협력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 기술 분야의 성공 경험을 알고 싶다"면서 "정전에너지, 에너지 저장, 전기차, 아마존 지역 보건, 혁신 등 녹색 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의 혁신 협력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양국 간 포용적인 디지털, 녹색 협력

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가 작년 9월에 시작한 '콜롬비아 미래' 위한 약속은 '한국판 뉴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 미래'를 위한 약속은 디지털에 기반한 포용적인 유사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 협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콜롬비아는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문 대통령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존경과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이어, 두케 대통령은 "평화 구축, 지역 개발, 산업, 교통 등 한국 정부의 한 걸 같은 개발협력 사업은 콜롬비아의 평화 재건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차기 P4G 개최국으로 지속가능한 P4G 협력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두케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과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되며, 역사적 관계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케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문은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양국 간 형제애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한-콜롬비아 관계 발전의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농업 협력, 금융, 보건, 방위산업, UN 등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끝으로,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간 '보건 협력 협정', '유해발굴 협력 양해각서', '문화예술 및 장의산업 협력 양해각서', '농업 협력 양해각서', '장업생태계 협력 양해각서', '보훈 협력 양해각서' 등 6건의 협정과 MOU를 체결했다.

출처=청와대

채택 최광수/기자

[칼럼] 풍전등화 한국 언론의 현주소

하필이면 25일 새벽 4시였을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과 같은 날과 시각, 물론 우연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 이후 25일 새벽 4시 법사위에서도 차수 변경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를 전격 통과시켰다.

대해 외신기자들은 민주시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소탐대실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며 전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명예훼손죄가 언론에 적용되는 점은 이해 불가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서는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고 여당에서는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제 한국 언론의 현주소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됐다. 국회법 제93조의2를 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은 국민 앞에서 협치쇼를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날치기 한다고 성토했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수를 변경하면서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본회의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일정을 고려하여 8월내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시간이 오전 2시를 넘겨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2시간 가까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여야는 25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4시경 결국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의 반발 속에 새벽 4시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 힘의 논리가 먹힌 것이다.

야당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며 퇴장했고 여당은 단독으로 핵심적인 안건들을 일괄 처리했다. 견제는 아예 없었고 일방통행의 입법과정이었다.

이렇듯 모든 분야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여당의 강행, 야당의 반대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시민단체와 학계·법조계, 정의당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의 제정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거칠 것이 없었다.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 개정안의 숨겨진 이면에 과연 문재인 정부의 임기만료에 대비한 것인지 언론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해사례와 방지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이제 언론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로 추정한다는 대목에서 회복가능한 손해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도 고무줄 잣대로 재는데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를 차단하는 동기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사회적 공공기구인 언론이 특정 권력에 의해 짜깁기 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논란 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삭제되었지만 언론에 대한 심리적·현실적 무게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얼마 전 황희 문체부 장관이 한국 ABC협회의 예산 지원 중단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협회의 부수 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신문법 개정과 한국 ABC협회의 실질적인 해체에 이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 언론의 변화일수도 있겠지만 암울한 미래의 자화상을 예고하는 경종일수도 있다.

또 정부 산하의 기구를 통해 구독률 등을 조사하고 정부광고도 이에 맞춰 집행될 것이라고 전제하자 사실상 ABC협회는 해체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도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모 언론사의 부수를 과장되게 발표하다 걸린 것이 화근이지만 시장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정부가 평가하는 매체 영향력에 길들여진 언론에 의한 피해는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 25일 의원 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제언론기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 현실에 대해 뱀도 모르니까,

이래저래 수난의 시기에 돌입한 한국 언론, 특히 신문은 적어도 10년 전부터 예정된 재앙의 수순을 목살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뭐든지 그렇지 않느냐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발언의 당사자가 일반시민도 아니고 여당대표이다 보니 파장은 컸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포털에 기대야 하는 현실, 한국ABC협회가 공인성을 담보받아 정부기관으로부터 광고예산을 받아야 하는 현실, 그나마도 해체되어 공적 기구임을 인정받을 수 없고 민간 언론사 스스로가 인정받는 길을 찾아야 하는 현실, SNS에 미디어의 근간을 내주고도 모자라 가짜뉴스로 치부 받아야 하는 모든 현실은 언론이 걸어온 장도의 흔적에 대한 결자해지다.

공인으로서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함에도 뱀도 모르니까

덕암/김근식

김정숙 여사, '루이스' 콜롬비아 영부인 환담



김정숙 여사는 오늘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청와대 본관 1층 접견실에서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환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두께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해 주셔서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과 콜롬비아 간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루이스 여사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

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올해 콜롬비아에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 협정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어 이번 국민 방한이 더욱 뜻 깊다며,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양국이 함께 도약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와 루이스 여사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보



육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뒷받침 되었다고 말하며 한국의 공교육과 무상급식, 교육방송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를 이야기하며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지구촌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고, 루이스 여사는 크게 공감하며 '보존하면서 생산하고, 생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두께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환담은 줄곧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문화와 K-팝에 관심이 많은 루이스 여사와 K-팝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접견실 복도에 전시된 발달장애 작가 최차원 님의 작품 '바다거북과 산호'에 관심을 가진 루이스 여사에게 김 여사는 바다 속 생명의 조화로운 그린 작품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며 양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출처=청와대

채택 최만식/기자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진로체험·생태환경 교육으로 전남 미래를 준비하자”

진로체험·생태환경교육 시설 방문 광복 행보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지난 24일 '곡성 꿈키움마루 개관식'과 26일 '전라남도 자연탐구학습관 개관식'에 참석해 “진로와 생태환경교육 활성화에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곡성 꿈키움마루’는 전라남도·전남도교육청·곡성군이 총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함께 조성한 진로 체험 및 교육 시설로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층 로비에는 주민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날 곡성 꿈키움마루 개관식에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유근기 곡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 자연탐구학습관’은 전라남도 자연탐구원에 새롭게 조성된 생태 체험 학습 시설로 학생들이 숲이나 습지, 바다 등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기존에 자연탐구원 안에 마련된 생태학습장 및 자연보존관과 함께 생태환경교육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날 ‘전라남도 자연탐구학습관 개관식’에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장성·담양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및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유성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며 “도의회와 자치단체가 진로체험 및 생태환경교육에 적극 투자하여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성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또, 2021년 도교육청 본예산에서 기후위기대응과 생태환경교육 강화에 12억을 지원했고, 2차 추경 예산에는 AI교실 구축, 교구 확충에 148억 원, 시·군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및 운영에 23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김영안/기자



용인시의회,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용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공동 홍보 추진 방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례시의회는 그간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민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힘쓰겠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미반영 시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맞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흰색·연미색·계란색·연분홍색·하늘색·스카이그레이 등의 색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 2018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개표소 개함부에서 색상 구분이 어려운 투표용지가 뒤섞이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개함부에서는 용지 색상을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표를 분류하는데, 비슷한 색상의 표가 잘못 분류되는 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혼란을 빚었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색각이상자의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선관위로 하여금 색맹·색약이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는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투·개표 과정에서의 착오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한 투표용지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은 8월 26일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 의무화 등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학사일정, 운영 등 대학이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있었다.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갔다.

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여파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더라도 낮은 수용률과 높은 경쟁률로 어쩔 수 없이 월세방을 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 등 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숙사의 공간협소 문제나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박상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이고, 그중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6.7%이다. 수용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대학은 ▲서울대 ▲인천대 ▲부산대 ▲경상대 등 총 20개 학교이다.

동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25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하한인 2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운영, 비용 책정 등 주요 사안의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더불어

학생 자치 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서영인 의장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지만, 월세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숙사 수요, 선호는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고 이는 교육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서울대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 수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장은 “현재 서울대는 기숙사 자치회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운영·관리 심의 기구 구성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해 민원과 의견 처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심의 관리 기구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입법을 통해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영기/기자



국회의원 이재정·민주연구원,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은 민주연구원(노웅래 원장)과 함께 오는 9월 한 달간 매주 1회 공공외교 현황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1회차(9/1):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 '2회차(9/9): 공공외교 참여 주체 확대 방안', '3회차(9/16): 미·중·일·러 대상 공공외교 전략', '4회차(9/23):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 '5회차(9/30): 종합토론', '특별세션(일정 추후 공지)'으로 총 6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는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가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영미 교수(중앙대)·김봉철 교수(한국외대)·강수연 심의관(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이 공공외교 현황과 법·제도적 현황 등에 대한 지정토론에 나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 등 전반을 진단하고, 전망과 방향성 등에 대해 뜨겁게 토론할 예정”이라며,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4선, 서울마포갑)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공외교의 올바른 방향과 성장을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연속세미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정부/기자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인 대상은 160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남성 장애인에 비해 14배 많이 발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 5대 성범죄는 장애인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간강(576건), 장애인 위계등 간음(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170건), 장애인 준강간(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20대(738건)였고 미성년자(7세~20세) 582건 순이었는데, 이들 대상으로만 성범죄 발생률이 58%에 육박했으며, 30대 422건, 40대 303건, 50대 248건, 60대 이상 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어, 죄다 발생 장소는 주택으로, 단독주택 542건과 아파트·연립다세대 521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역·대합실 515건, 숙박업소·목욕탕 329건 순이었다. 더욱이 노상에서도 24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성범죄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발생했던 ‘도가니’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성범죄는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하루 평균 약 2건씩 발생하고 있고, 20대와 10대 미성년자인 여성 장애인은 우리 주변의 일상 거주 공간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대응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비율은 5%대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반복되기 전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의무적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과 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공공외교 현황 및 발전 방향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일시 2021년 9월 월요일(매주 1회)(총 6회)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경상동로55길 10, 3층 309호)

참여 2007년 4월 12일 창간 기념식(경상동로55길 10, 3층 309호)

주최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연구원

주최 후원 TV 생중계 채널

회차	일시	주제	발제자
1회차	9월 1일(월)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	김태환(국립외교원 교수)
2회차	9월 9일(수)	미·중·일·러 대상 공공외교 전략	조영미(중앙대 교수), 김봉철(한국외대 교수), 강수연(외교부 심의관)
3회차	9월 16일(목)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	김태환(국립외교원 교수)
4회차	9월 23일(목)	종합토론	김태환(국립외교원 교수)
5회차	9월 30일(목)	특별세션(일정 추후 공지)	김태환(국립외교원 교수)

문의: 민주연구원(02-2612-7951)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박행민·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경 계 부: 내선 (114) 오 케 이 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대표전화: 1899-9659
편 집 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서울시, 현대건설(주)과 에너지취약계층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현대건설(주), 에너지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비 1억 7천만 원 기부

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현대건설(주)과 함께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플랫폼 CEMP(CSR & Emission Matching Platform)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CEMP(CSR&Emission Matching Platform)는 기업의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으로, 참여 기업은 추진 사업의 탄소 배출 감축량 평가 및 외부사업 등록·승인 단계를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현대건설(주)은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여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교체하는 H-그린세이빙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8.8%)을 건물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H-그린세이빙 사업으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H-그린세이빙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한다. 현대건설(주)은 인정받은 배출권 수익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다시 기부하며, 이는 초·중학생 대상 에너지 교육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건설(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사회복지협의회와 4차 협약을 체결

하였다. 8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문제철 현대건설(주) 상무, 박병준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기업·단체가 조성한 기부금(품인) 서울에너

지복지시민기금으로 2015년부터 매년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에너지 효율화, 고효율제품지원, 긴급(폭염·한파)지원, 에너지생산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5966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휴대폰 #70795050 문자전송(건당2천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2021-1750 ~1751/1772로 연락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해 힘써주신 현대건설(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탄소배출권 획득형 공헌사업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동구, 희망을 나눠요 '강동형 나눔가게'의 새로운 출발

강동구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강동형 나눔가게'를 새롭게 운영한다.

'강동형 나눔가게'는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역주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중소기업·프랜차이즈·학원·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나눔가게'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는 서울시 복지공동체사업 통합운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구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강동형 나눔가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본격적인 사업시작에 앞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 나눔가게

현황을 재정비하였고, 13개동 112개소의 사업장이 '강동형 나눔가게'로 새롭게 나눔을 이어가게 되었다.

'강동형 나눔가게' 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또는 분기별 2회 이상 나눔을 지속하면 구에서 새로 제작한 '강동형 나눔가게' 인증현판을 전달할 예정이고, 올 하반기에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참여를 시작한 '강동형 나눔가게' 1호점과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의 나눔 실천에 기여해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내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식기자



관악구, '청춘ing 우리는 모두 청춘이다!' 제3회 관악청년축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관악구는 전국 청년 인구 비율 1위(40.6%)의 자타공인 청년도시이다. 구는 코로나로 침체된 사회에 활력을 제공하고, 세대공감 소통의 장을 통한 건전한 청년문화 조성

과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3회 관악청년축제'를 개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연 여건이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공연 문화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며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9월 11일 본행사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없는 관악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해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구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 오

후 3시까지 '제3회 관악청년축제'에 함께 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방구석콘서트, 청춘톡톡, 청춘골든벨, 타임머신사진관이며, 참여 영상 등의 자료 편집본을 청년정책 활용에 동의하고, 종교·정치·사업(영리) 목적이 없는 주민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신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청년>청년소식) '관악청년축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9월 2일 관악구청 홈페이지와 선정자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며, 방구석콘서트와 청춘톡톡 참가자에 한해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성원기자

동작구, 동작구민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시행

동작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9월부터 도입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술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구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항목과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은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와 관련된 항목을 신규 편성했다. 보장항목으로 ▲실버존 사고 치료

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유독성 물질 사망 ▲개물림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 5개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의료사고 법률 지원 포함 총 6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NH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은 “예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주민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험 가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제3회 관악청년축제 청춘ing
우리는 모두 청춘이다!
2021.9.10.(금) ~ 9.12.(일)
YouTube '라이브관악' 채널

SNS 챌린지 사진공모전, 방구석콘서트 청춘톡톡, 청춘골든벨, 타임머신사진관
온라인 라이브 생방송(본행사) 9.11.(토) 15:00 ~ 18:00 / MC 박진

관악구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주년 기념식 개최

개소 15주년 기념식 및 '이상한 정상가족' 저자 특강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구로구 가족과 함께 한 지난 15년을 돌아보고, 가족복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방법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4시 / 유튜브 실시간

대상
구로구민 누구나

내용
1부 기념식 기념영상 / 축사 /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
2부 특별 강연회 주제: 정상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강사: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저자, 여성가족부 장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bit.ly/구로건강가정15주년

문의
070-4066-0485(가족문화팀)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로구가 '구로구 건강가정·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15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념식 공모전 수상자, 김희경 작가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1부는 센터 개소 15주년 기념영상 시청, 축사,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구로구는 센터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용 후기, 센터를 통해 성장한 모습 등을 주제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모전을 진행, 27일 수상자를 선발했다.

2부에서는 2021년 구로의책 성인 부문 김희경 작가가 우리 사회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참여를 원하는 구로구민은 홍보 포스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김미성기자

은평구, 추석맞이 10% 할인 '은평사랑상품권' 100억 원 발행

서울 은평구는 추석을 앞두고 은평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100억 규모의 은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연말 30%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이번 발행을 더하면 올해만 총 390억 원 발행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9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은평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개인 1인당 월 70만원이며, 보유한도는 200만원(선물포함), 구매할인율은 10%이다. 법인은 구매 및 보유 한도는 없지만, 구매할인을 받을 수 없다.

상품권의 잔액은 표기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에서 구매할인 비율만큼을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비례제로 페이 등 20개 결제 앱과 서울시 공공배달 앱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구매·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은평구 내 편의점, 약국, 학원, 카페 등 10,000개가 넘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로는 9월 1일 이후 사용할 수 없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발행하는 은평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살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구매자 모두를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은평구 제로페이 가맹점 10% 할인!
은평사랑상품권
9.3(금) 오전 10시

이용가능점: 100여개 (제로페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 신한, 롯데, 현대, GS25, 편의점, 약국, 학원, 카페 등)

사용가능점: 은평구 제로페이 가맹점 (대규모 점포, 서빙업 등 사용 불가)

이용처: 은평구 관내 사용가능 (거주지역 관계없이 구매가능, 발행 자치구 내 사용가능)

문의: 02-120-1670-0582 / zeropaypoint.or.kr

동해시, '현장특특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8. 26. 14:00~ / 한섬 감성바닷길 조성사업 및 도재비글 스카이벨리 현장점검

동해시는 현장중심 소통강화 행정구현을 위해 지난 26일 현장특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특특은 부서장을 주제로 국, 부서장 및 동장이 직접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반영토록 하는 현장중심의 소통강화 시책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팀장 이하 주무관급 직원들도 동행했다.

현장특특 점검단은 우선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섬감성바닷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해안 산책로 조성 현황과 군경계절조망 철거사업 추진상황을 살폈다.

점검단은 공정 막바지인 한섬감성바닷길이 시민들을 위한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벤치,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마무리와 함께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6월 개장해 하루 평균 1,100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도재비글 스카이벨리 사업 현장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시설물 미비사항 등을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했다.

김상영 동해시 부시장은 "현장특특을 통해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의성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단속 실시

의성군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고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농어촌·시외버스에 대하여 8월 30일부터 9월 말일까지 차고지 및 터미널에서 정차상태 배출가스(매연)를 무상점검하고, 이와 함께 초등학교 앞 등교시간에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회전 금지 등의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한 10월부터 한 달간 농도미세먼지 취약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비디오키메라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자가 정비할 것을 안내하고, 정지상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안내 등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2020년까지 총사업비 11억3천3백만원으로 1,031대(매연저감장치 20대, 노후경유차 1,011대)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총사업비 13억8천3백만원으로 631대(매연저감장치 169대, 노후경유차 462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운행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라는 인식을 높이고 탄소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쾌적한 의성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보령시, 다가오는 '주꾸미 대첩' 대비 낚시어선 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낚시어선 62척 점검

보령시는 오는 9월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철이 시작됨에 따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낚시어선 점검에 나섰다.

천수만을 끼고 있는 보령 앞바다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른바 '주꾸미 대첩'으로 불릴 정도로 주꾸미 낚시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에 올해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낚시어선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관내 낚시어선은 오전면 161척, 웅천을 72척, 대천5동 69척, 천북면 38척, 남포면 3척 등 총 343척으로 그 중 승선인원 13인 이상(5톤 이상)인 62척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김원호/기자

연천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위생관리상태 지도·점검 실시

연천군은 3주간 식품자동판매기 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상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여부 ▲자판기 내부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 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여부 등이다.

군은 위생 점검 시 편의점 내 캔커피 등 온장보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경과 및 보존온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유해식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조규호 함안부군수, 지역발전사업 현장 점검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덕촌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 방문

조규호 함안부군수는 지난 25일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2015~2022)과 '덕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021~2024)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은 시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일원과 창원시 북면 외산리 일원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도농교류축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오리상생길 연결(connection) 2.0km, 상수도 공유(cooperation) 0.5km, 낙동강변 상생광장 조성(community) 사업을 추진,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덕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 3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칠북면 덕남리 덕촌마을 일원에 추진 중이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연결길 조성, 노후담장 및 지붕개량 등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조규호 부군수는 "단절된 생활도로 연결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근 지역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장수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점검 추진

장수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공무원2,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2)을 구성해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석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

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 등 계도를 하고 위생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박문철 축산과장은 "명절 대비 축산물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승요/기자

하남시, 개학 대비 학교 주변 위생 및 방역수칙 점검

하남시는 9월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학원 주변의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위생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23개 구역(151개소)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 및 판매여부, 조리 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 관련 점검을 진행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

검한다. 자율방역점검표 및 소독환기 대장 50부를 배부하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플(080) 사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리업소 종사자 대상으로는 위생마스크, 앞치마 착용여부 확인 및 착용 독려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요즘, 위생 및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 주변 식품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생 점검에 학교와 학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더샵 오산엘리포레

머물고 싶은 오산시, 교육·보육환경 빛났다

오산시는 1989년 시로 승격돼 인구 5만으로 출발하여 교육주도 성장과 우수한 보육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 24만 명의 중견도시로 성장함은 물론, 평균 연령 37.79세(2020.12월 기준)의 젊은 도시로 성장했다.

오산시가 젊은도시가 된 비결은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도시 전체가 함께하는 오산시민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다. 오산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픈아이 119 돌봄지원 서비스사업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오산시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인 '365-24 시간제 보육사업'과 '아픈아이 119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우수한 보육정책이다. 365-24 시간제 보육사업은 365일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로 만5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둔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픈아이 119 돌봄지원 서비스사업은 수족구, 감기, 눈병 등 전염성 질병에 걸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3학년까지) 등원하지 못하는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산시는 2010년부터 시정의 핵심정책을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추진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아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도시와 함께 성장하여,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도시라는 브랜드로 공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의 대표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단순히 경비만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지역에 맞는 교육적 자원 발굴과 연계를 추진하면서 학교와 학부모에게도 신뢰받는 교육지원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는 지역의 경제 생



태계로도 연결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혁신교육 성공사례는 시민참여학교, 생존수영, 미래내일학교, 학생1인1악기통기타수업, 일반고 열리버드사업, 토론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학교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학생과 시민이, 학교와 마을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소리올도서관, 오산고현초꿈키움도서관, 오산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등의 지역공간을 마련하였고 오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로운 방문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오산에서는 더 이상 학교교육, 평생교육의 경계가 없으며 오산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산시는 2020년 '교육기반 AI 특별도시'를 선포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역량 교육과 AI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AI 특성화고(가칭 세교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5학급 3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고 소프트웨어개발과와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등 학과를 갖추고 기숙사까지 겸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미래교육의 산실로 구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AI교육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교육 증가에 따라 학교 현장 내의 스마트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학교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시범학교 6개교 지정에 이어 향후 오산시 전체 학교로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산창업해봄센터'도 조성중이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2,000㎡ 규모의 전문형 시제품개발실, 벤처사무실, 벤처캐피탈 등 공간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 후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진로탐색과 실전 창업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산시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시의 정주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지난 10년간 오산시가 집중해온 교육 및 보육정책과 정주성의 상관성이 무려 8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이후 오산시의 연도별 가구 증가율은 34.4%, 정주 기간은 10년 전보다 59.1% 증가했으며 결국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지역정체성 회복과 정주성 향상을 가져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산시민의 보육·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아동 건강 위해 '맞손'

도 청소년수련원과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27일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27일 '경기도 아동의 건강한 생활 및 환경성아토피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환경성아토피피질환 예방·관리 협력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정보 교류 및 연계 협력 사업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은 8월부터 11월까지 유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유아가 그린 환경'을 진행하는데, 이 중 원에 활동을 주제로 한 영상 시청 후 휴식·식물과 교감하며 오감 능력을 향상하는 '식물과 교감하는 건강 원예놀이'를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와 협력 운영할 예정이다.

양급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이번 협약이 아토피피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주인공 아동과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의정부시, 2021년 상반기 행정혁신 유공 표창장 수여

의정부시가 8월 27일 2021년 상반기 행정혁신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의정부시의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행정,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등 각 분야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시정 혁신에 기여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 5명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매년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혁신의 토대를 만들어 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안병용 시장의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0년 출범하여, 시의원, 대학교수 및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각계 전문분야의 박사급 5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일반행정분야, 보건·복지분야, 교육·문화분야, 도시·교통분야 등 4개의 각 분야에서 10여 년이 넘게 의정부시의 행정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도전했던 시정자문기관으로 매년 20여 건 이상의 정책연구, 의정부포럼, 학술대회 등 의정부시 행정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제48주년 시민의 날' 온라인 토크쇼...200명 모집 중

성남시는 오는 9월 27일 '제48주년 성남 시민의 날(10.8)'을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쇼는 'We, Connected'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조충현 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은수미 성남시장과 200명의 시민들이 줌미팅으로 시민의 날을 함께 축하하며 성남살이 이모저모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된다.

성남에 대해 알아보는 퀴즈 대결, 나에게 특별한 성남 핫스팟(장소) 공개, 코로나19 종식 후에 하고 싶은 일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도쿄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 선수(성남시청 소속)를 초대하여 펜싱 어벤저스 팀과 최근 예능 방송 출연 에피소드 등을 들려준다.

현재 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토크쇼 참여시민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토크쇼 영상은 시민의 날인 10월 8일 오전 10시 유튜브 성남TV를 통해 공개된다.

성남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행사를 열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념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김포시 고촌도서관 '직업인 만나기2' 운영

김포시 고촌도서관은 오는 8월 25일 수요일부터 「직업인 만나기2」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촌도서관의 「직업인 만나기2」는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종합 프로그램으로 관내의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게 되는 페이스북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직업인으로서의 성장과정, 직접 겪은 현장 이야기,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역량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4명의 직업인이 참여하여 다양한 직업군(변리사, 세무사, 경찰관, 미술관장)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고촌도서관의 「직업인 만나기2」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희기자

수원시, '공간과 사람을 잇는 조명 이야기' 수강하세요!

수원시 광고홍재도서관이 '공간과 사람을 잇는 조명 이야기'에 참여할 수강생 50명을 9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인 '마음을 잇는 온(溫)택트 디자인' 세 번째 강좌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다양한 조명디자인을 통해 조명과 공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은희 조명설계가(케이엘씨오퍼레이션 대표)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총 2회(오전 10시~정오)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펼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조명디자인·설계의 기본 개념 ▲국내·외 다양한 조명설계 사례 ▲순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셀프 조명 인테리어' 방법 배우기 등이다.

이번 교육은 조명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고홍재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예약/신청'→'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마음을 잇는 온(溫)택트 디자인: 세 번째, 공간과 사람을 잇는 조명 이야기'를 선택하면 된다. 수강생은 문자로 온라인 링크를 안내받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광고홍재도서관은 지난 3월 '2021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 사업비 350만 원(도비·시비 각 50%)을 지원받아 '마음을 잇는 온(溫)택트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5~6월 '첫 번째, 책과 사람을 잇다'·'두 번째, 자연과 사람을 잇다' 강의를 진행했고, 오는 11월 24~25일 네 번째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9.29.wed
|
9.30.thu
10:00~12:00

세 번째, 공간과 사람을 잇는 조명이야기

* '빛을 담고 있는 오브제', 조명 이야기를 통해
조명이 공간에 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강사: 김은희 (현) 조명설계가, (주)케이엘씨오퍼레이션 대표

<설계> 덕수궁 야간개장, 인천대교, 오크벨리 미술관, 리움리조트, 수원 컨벤션 미술 전시관 등

<저서> 『조명 인테리어 셀프 교과서』

접수: 2021. 9. 1. (수) 10:00~
대상: 성인 50명
방법: ZOOM 활용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신청: 광고홍재도서관 홈페이지 및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앱
문의: 031-228-4812

광고홍재도서관

양평군, '물맑은 양평쌀' 올해 첫 벼수확



지난 26일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일대의 5ha 논에서 양평지역 첫 벼베기가 이뤄졌다.

이날 수확한 벼는 고시히카리 조생종 품종으로 지난 4월 15일 모내

기 후 133일만에 얻은 첫 결실로, 수확 가공 후 이달 말부터 추석 전까지 직거래 및 백화점 출하, 로컬푸드 판매장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첫 벼를 수확한 전경북 농업인은 "봄철 저온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서도 잘 자라준 벼가 올해는 특히 더 고맙다"며, "양평군의 다른 농가들도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에서는 추석 햅쌀용 조기 벼로 면적 45ha를 재배해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수확해 추석 전 햅쌀 236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온 국민이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농업인들이 뜻깊이 농사일에 전념해 행복한 가을걷이가 시작됐다"며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돌발 병해충 방제와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용기자

동영상 통해 직업을 미리 만나보세요

직업인만나기 2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변리사 허경훈 9.3.(금)	세무사 최성민 9.9.(목)	경찰관 최병성 9.10.(금)	미술관장 정대운 9.17.(금)
17:00~19:00 (2시간)			

● 일시 9.3.(금) 9.9.(목) 9.10.(금) 9.17.(금) 17:00~19:00
● 장소 시립도서관 페이스북 방화실
● 대상 관내 청년
● 접수기간 2021.8.25 ~ 09.01
● 내용 직업을 소개해 준 계기, 직업인으로서의 성장과정, 직접 겪은 현장 이야기,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역량, 직업인으로서의 고민 등 직업인으로서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크쇼
● 문의 031-5186-4844

고촌도서관

김상호 하남시장, “지속가능한 도시 위해 힘 모아 달라” 백년도시위원회와 ‘시민 행복도시’ 방안 마련

하남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반기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백년도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백년도시위원회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5개 분과별 위원과 김상호 시장을 비롯한 시 실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를 통해 감일공원 명칭 예비지명안 선정 자문을 구하고, 하남시민선 7기 주요방향인 ‘시민이 건강할 환경도시’, ‘미래를 여는 자족도시’, ‘평생 함께하는 교육도시’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진전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 분야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호흡기 감염클리닉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자족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화폐 하마니 발행 △신장상권진흥구역 지원 △공공배달앱 추진 등이고, 교육 분야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생교육 종합정보제공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점토론을 거쳐 분과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분과별 의견은 9월 정기회의 때 담당부서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만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평생교육도시, 공정무역도시, 아동과 여성친화도시 등 9개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해 준 백년도시위원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백년도시위원회와 하남시 14개동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들고, 시민공동체를 뿌리내려 나가자”고 당부했다.

▶ 백년도시위원회, 하남시 ‘백년비전’ 만들기 위해 구슬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유니온타워의 폐기물처리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강력 촉구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 분과 안건으로 정하고 좀 더 깊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26일 오후 5시 하남시청 2층 상황실 백년도시위원회 정기회의.

이날 현안 브리핑에 이어 시작된 분과별 토의에서 교통환경분과 위원들이 유니온타워의 폐기물처리 설치비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분과위

원들은 마스크를 하고 실내가 더운 데도 개이지 않고 각자 의견을 내며 바람직한 방안 마련에 열중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교통환경분과를 비롯해 △안전도시분과 △교육복지분과 △자치행정 △일자리경제 등 5개 분과별로 해당 현안문제를 놓고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 한편에서 하남시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하남시의 9개 주요정책을 요약해 집에서 직접 그려 왔다는 그림이 놓여 있었다. 책받침 크기의 그림은 나무 기둥에 ‘민관협력’을, 잎사귀에는 ‘환경교육도시’ 등 9개 중점과제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력자로 백년도시위원회·시민감사관·공공감동심의위원회 등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뿌리는 유관단체·자원봉사단체·14개동·시민공동체 등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림 한 장에 하남시의 비전을 모두 표현해 놓은 것이다.

김상호 시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주요정책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 왔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시민들의 협조와 백년도시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함께 해 준 덕분에 평생교육도시, 공정무역도시 등 하남시 주요 정책들이 빛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백년도시위원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있어 하남시의 비전에 강한 희망과 확신을 갖는다”면서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협력을 부탁했다.

백강호기자



안성시,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고 문화혜택 누리세요!

경기 안성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1인당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기일 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상은 만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되며,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고,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았던 이력이 있는 대상자(만 14세 이상,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이후 대상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4521명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서 사용 중이고, 추경예산을 통해 1404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직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 잊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평화도시 기본 구상 및 상징공원 조성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 개최, KTX광명역~도라산역 DMZ평화기행 등으로 시민과 함께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해온 광명시가 ‘평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광명시 평화도시 기본 구상 및 상징공원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평화도시 조성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이형덕 광명시의회의원, 광명도시공사, 전문가, 용역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광명시는 지난 5월 12일 광명평화동굴 도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의 1%를 ‘광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적립하고 광명동굴 주변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역사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광명시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 정체성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광명시만이 가지고 있는 KTX 광명역과 광명동굴의 장점을 살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 평화 지향, ▲시민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 주도의 평화도시, ▲시민이 향유 할 수



있는 평화 문화, 평화 교육 등 정책 추진, ▲KTX 광명역, 광명동굴을 기반으로 통일 한국 준비 등 평화도시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평화의 의미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시민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통일, 자유, 행복, 화합, 안전, 평화 등 6개의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의 1%를 ‘광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적립해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며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평화도시 행사나 공간 조성을 떠나 광명동굴, KTX 광명역,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광명시의 특색을

살린 평화도시 이미지 마련과 공간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 중간보고회, 11월 최종보고회를 열어 전문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의 특성이 반영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평화도시 조성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국제평화도시 가입,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 사업 추진 전략 마련 등 평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가 서로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최정무기자

시흥시, '성장단계별 청년 창업공간 지원' 하반기 청년협업마을 청년기업 입주 모집

시흥시가 운영하는 청년지원시설인 청년협업마을에서 오는 9월 24일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초기창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총 14개의 입주공간 중 열립관 독립형 사무실 8개실과 가치관 준독립형 사무실 6개실이 대상이다.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39세 이하(1981년 8월 26일 이후 출생자) 청년은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독립형 공간은 상주 인력이 2인 이상인 초기창업가(3년 이내), 준독립형 공간은 예비·초기창업가다. 각 공간별 최대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 대상인 독립형 입주공간은 최소 27㎡부터 최대 56.16㎡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며 전용 공간을 기업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년 사용료(2021년 상반기 기준)는 약 57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준독립형 입주공간은 기업별로 한 층에 유리벽으로 사무공간이 구분돼 있으며 회의실, 작업실 등 입주자 전용 공용공간을 함께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 청년 창업가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원종균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문경시, 으뜸음식점 5개소 지정 운영

문경시는 새재할매집, 우정가든, 황토담, 산동네정국장, 경북제일추어탕 총 5곳이 경상북도 으뜸음식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우름음식점은 경상북도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우수업소 발굴과 지역 음식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고객으로 가장한 암행심사(미스터리 컨슈머) 방식으로 선정된다.

2021년 신규 지정된 새재할매집은 '더덕 석쇠구이 정식'과 국내산 돼지 삼겹살에 채래식 고추장과 마늘 등을 넣어 숙성시킨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가 있으며, 우정가든은 '문경약돌돼지 삼겹살' 메뉴로 선정되었다. 2개 음식점은 경상북도로부터 으뜸음식점 지정증과 인증표지판, 유튜브 홍보영상 촬영, 털어먹을 수

있는 털것가라 등 지원받았다. 또한 앞서 2020년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된 황토담은 '약돌돼지 고추장주물럭', '소곱창 전골'이 있으며, 산동네정국장은 '정국장 정식', 경북제일추어탕에선 '추어탕', '어탕국수', '갈뱅이국'을 맛볼 수 있다.

최근 문경시에서는 전년도 지정된 으뜸음식점 3개소 대하여 앞치마, 위생모, 수저세팅지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지정된 2개 음식점은 2022년에 물품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지사 인증 으뜸음식점을 통해 문경시의 특색있는 지역음식과 시인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위생적인 환경과 식사문화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영주시, '기업애로' 찾아가서 해결해 드립니다!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1기업 1담당 기업도우미제 실시

영주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3분기 '1기업 1담당 기업도우미제'를 실시한다.

1기업 1담당 기업도우미제는 시청 5·6급 공무원이 관내 1개 기업을 전담해 불합리한 규제, 애로·건의사항 등 상담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영주시의 특수정책이다.

시는 올해 2분기까지 기업 상담을 통해 우수관 정비, 공단 내 환경 정비, 공단 진입로 확장 등 50여 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3분기에는 115명의 공무원이 담당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도우미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겠다. 특히 이번 상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 역량 향상을 위한 내년도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상담과 함께 관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백신접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코로나19

19로 인한 기업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장육현 영주시장은 "맞춤형 공감 상담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지원 정책 수립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기업 애로·건의사항은 영주시청 투자유치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현기자



의성군, 의성컬링센터(신관) 개관식 개최

의성군은 26일 김주수 의성군수와 의성군의회위원장, 경북장애인컬링협회장, 의성군 컬링협회장, 컬링학생선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컬링센터 신관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군은 의성컬링센터 신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사비 총 60억원을 투입했으며, 2017년 착공 후 지난 2020년 12월에 준공했다. 신관의 연면적은 1,737㎡ 규모로 경기장 2시트, 관람석, 기타부대시설 등 북측구조로 건립되었다.

이번에 새로 건립된 컬링센터(신관)는 국제규격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

의 컬링경기장으로, 각종 대회와 훈련장은 물론 군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 동아리 활동을 통한 컬링 선수 발굴 및 육성, 군민들의 컬링 체험활동 등 컬링 저변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의성컬링센터(신관) 개관에 맞추어 컬링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등을 유치하며 지역 경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양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영양 만들기 프로젝트Ⅲ 시작!

영양군, 2021 3차 주민제안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영양군은 도시재생활수립 주민제안 공모사업 '생기발랄! 오순도순! 영양 만들기 프로젝트Ⅲ' 참여자를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년 예정되었던 세 번의 공모사업 중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3인 이상의 개인 또는 팀·단체인 영양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영양군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및 영양읍내 대상지에서 실행 가능하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양조장 공간조성과 벽면(담장)개선, 꽃길조성 등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공모신청은 영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9월 10일까지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영양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응모한 공모사업은 서류 및 면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에는 건당 4백만 원, 8백만 원 이내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벌써 올해만 세 번째 주민제안공모사업이다. 이렇게 3차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다. 그동안 실행된 사업들로 거점시설 양조장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나

2021 영양군 도시재생활수립 주민제안공모사업

생기발랄! 오순도순!

영양만들기 프로젝트Ⅲ

접수기간 2021년 8월 30일 ~ 9월 10일
신청자격 영양군민 누구나 (최소 3인 이상)
사업대상지 영양 양조장, 영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읍소재지
사업내용 기획내용: 도시재생 거점시설(양조장) 공간 조성
 지원분야: 소규모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기타 도시재생 관련 사업
지원금액 400/800만원 (2명), 자부담률 10%
사업기간 2021년 9월 ~ 11월 (3개월)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설명서
 영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접수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우편 접수
 이메일: yy-rc@naver.com
 방문 및 우편접수: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53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영양읍 행정복지센터 2층)
심사방법 1차: 서류 및 대면 심사 2차: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발표 개별통보
문의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054-683-6377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yy-rc>

인테리어소품 등으로 공간 조성이 이루어졌고, 공모사업 참여를 계기로 조직된 주민들끼리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

기획하는 공모사업의 경험들이 지속가능한 영양군 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대구광역시, '2021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패션쇼(TeFa show 2021)'개최

대구 지역 섬유와 패션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패션쇼(TeFa show 2021)가 오는 8월 27, 대구 EXCO 3층 그랜드볼룸A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본 행사는 섬유·패션 산업의 동반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차별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NEW 트렌드를 제시하고 대구 지역 소재와 패션 완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네이버 TV 생중계를 통해 온택트 기반의 온·오프라인 패션쇼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 방역을 철저히 한 패션쇼 현장에 바이어 등 소수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오프라인 패션쇼를 진행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시민이 대구 지역 패션 기업의 우수성을 볼 수 있도록 '대구패션페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패션쇼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패션업체 4개사('최복호'(대표: 최복호, 최주영), '리리(대표: 이승익, 김지윤)', '스튜디오리리(대표: 박정영)', '바이디바이(대표: 송부영)'와 지역 소재 업체 9개사(자인, 백산자카드 외 7개사)가 협업체하여 탄생한 신규 시즌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8월 27일, 하루 총 3회에 걸쳐 온라인 패션쇼로 선보일 예정이다.

향후 패션쇼 영상은 네이버TV,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전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내외 바이어 대상으로 수주 비즈니스 활동에 활용하여 대구 대표 패션업체와 지역업체를 글로벌 패션 시장에 소개할 예정이다.

2021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패션쇼(TeFa show 2021)는 아래의 링크에서 8월 27일 오후 12시를 시작으로 실시간 패션쇼 관람이 가능하다.

남궁영기자

TeFa show 2021

테파쇼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2021. 8. 27 FRI
EXCO 3층 그랜드볼룸A

패션쇼 I [12:00]	패션쇼 II [14:00]	패션쇼 III [16:00]
CHOIBOKO CHOIBOKO	리리 RICK RYE	스튜디오리리 STUDIO DARR
자인 JAIN COLTD	마태카무역 Mateka Trading Co.	바이디바이 BY D BY
백산자카드 BAKSANJACARD	엑스원 X-ON	청고야 CHUNGGA
	백산자카드 Baksan Jacquard Co., Ltd	지현동상 JI HYUN TRADING COMPANY

안전 도시 경산,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경산시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 시민 안전을 위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 중점점검(고위험) 대상시설만 지자체 직접 수행으로 점검을 최소화하게 된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안전관리자문단, 시민관찰단, 시설 소관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점검대상 시설물 확정, 건축·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점검 일정과 실시 계획을 논의하였다.

점검대상은 중앙·부처 위임시설과 자체 선정 노후·고위험 시설물로 ▲공동주택 2개소, ▲문화재 2개소, ▲관광승락시설 1개소, ▲야영장 1개소, ▲농어촌민박 5개소, ▲체육시설 1개소, ▲하수도 1개소, ▲폐기물매립장 1개소, ▲전통시장 1개소, ▲저수지 12개소, ▲산사태취약지역 7개소 등 총 34개소이다.

진단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진단 기간 동안 시민관찰단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단독·공동주택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 협회, 관리주체는 안전점검표를 활용 자율점검을 실천하게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우리 생활 속에 작은 관심과 실천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며,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만큼, 시기와 점검대상을 조정해 내실 있는 시설물 점검과 함께, 방역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안전한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문경시, 제2기 '행복문경 지킴이' 본격 활동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망 구축

문경시는 제2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문경 지킴이'가 오는 9월부터 2년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문경 지킴이'는 각 기관과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복지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 지원하는 복지 인적자원망을 구성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나아가 복지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이·통장 포함 509명을 위촉하는 한편, 문경우체국, 한전엠씨에스(주) 문경지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경시지회,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문경시장에인종합복지관, 문경지역자활센터, 문경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7개 기관·단체들의 업무협약을 통해 방문형 직종종사자 400명을 추가로 구성하여 총 909명의 행복문경 지킴이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도움을 요청, 복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제2기 행복문경 지킴이 위촉과 업무협약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 인적자원망을 구축하여 주변의 이웃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남도, 동부권·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개소



경상남도는 24일과 26일 각각 경상남도 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김해)와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진주)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노인·아동·장애인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지난해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창원)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추가 설치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 4월 동부권과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가 진행되어 동부권은 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대표 한재엽)이, 서부권은 진주여성회(대표 박혜정)가 각각 선정되었다.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직업·심리·고충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의 권익보호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돌봄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정책개발 ▲직업·심리·고충 상담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이다.

센터에는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 고충, 심리상담 등 기본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협약된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결해 준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강쉼터와 카페쉼터가 갖춰져 있으며,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실, 운동실을 갖추고 있어 돌봄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홍보와 권역별 실태조사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담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등 대

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권역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되면서 앞으로 3개 권역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사업 추진으로 돌봄노동자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 센터에서는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더 많은 돌봄노동자가 센터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부권과 서부권 개소 시기에 맞추어 한 달간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홍보영상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돌봄노동자 소속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26일 11시에 개최된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김기영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서부권에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더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찾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며, “돌봄노동의 긍지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센터가 되기를 바란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24일 개소한 경상남도 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김해시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에 개소식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센터 방문의 날을 별도로 기획하여 많은 돌봄노동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거창군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 배부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영역별 필수적인 핵심 내용이 담긴 지침서를 발간해 드림스타트 아동 200명에게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아이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는 드림스타트 필수서비스 교육교재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정서·행동 등 전인적 발달을 돕고자 제작됐다.

교재 내용에는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화재안전교육, 부모교육 등 아동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

아야 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은 “취약가정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적·전문적 서비스 지원으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등 법정 저소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 발달단계와 육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병철/기자



부산시, 지·산·학 협력으로 지역특화 금융 인재 키운다!

부산시는 국제금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지·산·학 협력사업을 통한 지역특화 금융 인재 양성에 첫 시동을 건다.

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국제금융센터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지역특화 금융 인재 양성 지·산·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서 등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부산금융중심지가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융 분야에 특화된 산학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금융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금융진흥원 참여기관* 금융전문가들이 지역대학과 매칭되어

비전임 교원으로 참여한다.

먼저, 올해는 ‘BIFC 비전임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금융기관 재직자를 비전임 교원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양성된 BIFC 금융실무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팀티칭 강사 등으로 채용되어, 학생들의 금융실무 전문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중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이번사업은 부산으로 내려온 금융공기업에 포함한 기관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공헌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혜택을 받은 대학 내 젊은 인재들도 취업과 함께 기업이 원하는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적인 금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금융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

과 대학이 함께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특화 금융인재 육성사업이 지산학 협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금융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지역 대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많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창원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창원시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성평등 실현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과 유공자를 2020년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실적 ▲정책 개선 정도 ▲교육 및 제도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올해 심사에서 창원시는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내부 전문가 ‘양성평등 전문직위 전문관’과 각 부서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을 지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과 주요업

무평가(BSC)에 반영하여 제도화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정책을 만들 때부터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공무원 성인지력을 향상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의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개선에 실효성을 높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매년 250여건의 자치법규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며 “앞으로 각 분야의 시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창원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창원시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성평등 실현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과 유공자를 2020년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실적 ▲정책 개선 정도 ▲교육 및 제도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올해 심사에서 창원시는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내부 전문가 ‘양성평등 전문직위 전문관’과 각 부서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을 지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과 주요업무평가(BSC)에 반영하여 제도화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정책을 만들 때부터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공무원 성인지력을 향상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의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개선에 실효성을 높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매년 250여건의 자치법규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며 “앞으로 각 분야의 시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진주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6일 오후 3시 능력개발관 동부센터에서 전문직업훈련 수료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협력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와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 관계자, 구인업체, 교육기관의 대표자 등 13명이 참석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와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한 구인 업체 대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업훈련 시 업종별 특성과 교육을 제안하면서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진주새일센터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진주새일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노인 생활관리 전문가, 회계사무실무자, 병원조무사 현장실무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진주새일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변화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구인·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턴십 지원,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활발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진주새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변광용 거제시장, 민원 현장 점검 “주민 불편 없도록”

변광용 거제시장이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꾸준히 현장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26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직접 민원 대상지를 찾아 현장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작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관계자가 동행했다.

변 시장은 지난 11일 사동면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3일부터 26일까지 총 26곳의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13일에는 장평동에서 ▲와치마을 복개전 상류 정비공사 ▲덕산내내 1차 아파트 옆 등산로 정비공사 대상지, 17일 삼문동과 수양동은 ▲고현초등학교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주작골 진입로 개설공사 등 4개소를, 18일 남부면과 동부면에서는 ▲여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율포마을 정자 설치공사 등 3개소를 방문했다. 또 19일 일운면에서 ▲서희아파트 후문 배수로 공사 등 3개소, 20일에는 옥포동, 상송동, 능포동을 찾아 ▲하덕마을 조성용 정비공사 ▲도시계획도 재포장공사, ▲능포 악취방지그레이팅 교체공사 등 6개소를 점검했다.

이어 26일에는 연초면과 하청면, 장목면을 차례로 방문해 ▲다공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죽전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대금마을 구거정비공사 ▲송진마을 피걸러 보수 및 개조공사 ▲덕곡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신동마을 시가지 정비사업 6개소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마을 통장 등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변 시장은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세심한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 시장은 제12호 태풍 오미카에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 확인에도 나섰다.

변 시장은 장목면 국민주택, 송진포, 외포천 수해현황을 차례로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한 후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련 부서에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즉시 모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조치 등 향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영훈/기자

함양군, 추석명절 상하수도 종합대책 추진

함양군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연휴 상하수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군은 우선 9월 17일까지 취·정수 시설과 하수처리시설 가동상태, 상하수도 관로 침하·누수 여부, 각종 변류·수도계량기 작동 상태 등의 사전점검을 통해 점검결과 미흡한 시설은 추석 연휴 전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상하수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연휴기간 동안 수도사용량 증가 및 불출수, 누수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기동수리반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2021 함양산삼함노화엑스포 기간과 겹쳐 있어 물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동참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민원대처로 추석 연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편안한 추석 연휴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군민들의 물 절약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김제 충효거리' 지정으로 김제의 정신 계승

김제관아~향교~성산공원~전통시장을 잇는 충효거리 지정

김제는 구도심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김제관아~향교~성산공원~전통시장을 잇는 「김제 충효거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제 충효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 공모와 타 시군 테마공원 벤치마킹을 통해 관아-향교-성산공원-전통시장 일원 약 1.5km를 지정하고 김제향교 앞 만화루 광장에 김제 충효거리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김제 관아와 향교는 국가 사적 제482호로 지방 행정기관인 김제 관아(忠)와 국립중등교육기관인 향교(孝)가 동시에 보존되고 있

으며, 사적지 내 소재한 김제 내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61호)는 국가보물 지정심의를 위한 문화재청의 현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 충효거리 지정을 통해 "우리 김제가 가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전통시장을 지켜주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제의 옛 중심거리에 특화된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통한 구도심의 활성화로 더 살기 좋은 김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정읍시, 농산물가공 활성화로 고부가가치화 농가 소득증대 앞장

과채주스, 잼 이어 과자류까지 HACCP 인증 품목 확대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역 농산물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 상품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농산물가공센터는 가공 창업 교육과 시제품 생산지원, 지역 농산물을 가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과채주스와 잼 2가지 유형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4일 과자류 인증도 획득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을 통해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연면적 763㎡ 규모로 제조가공실과 내·외 포장실, 위생전실, 교육장 등이 들어서 있다.

제조가공실에는 다품목 소규모 가공에 적합한 78종 90여 대의 장비를 갖춰 주스류와 잼류, 견과류, 분말류 등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가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주스와 딸기잼, 오디잼을 제조해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또한, 단풍드림 비트칩과 내 몸에 새싹 분말, 양배추 과립, 풀라겐 품은 알로에 잼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액상차와 분말 선식, 말랭이, 시럽 등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에도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 활성화와 가공 창업 농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HACCP 인증을 통해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농산물가공 식품의 안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첫 삽'

전주시, 26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 착공식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 착수

전주 혁신도시의 대표 생활체육공간이 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착수됐다.

전주시는 26일 전북혁신도시 중동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체육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다목적체육센터는 내년 9월까지 중동 852번지 일원에 국비 30억 원 등 총 1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3909㎡(1184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25m 6레인인 수영장과 함께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2층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과 야의 테라스가 생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공간 배치가 조화로운 설계안을 선정해 올해 5월 최종 설계를 마쳤다.

시는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되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등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체육문화시설이자 주민들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전주시민이든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보육공간 등을 확충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일/기자



진안군, 다양한 연령과 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모집

진안군은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까지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정규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와 초등학생, 성인 대상의 말말말말 그림책 주말 놀이터, 유튜브 영상제작, 쿠키클래스, 스피치 등 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11월 30일까지 운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강좌당 오프라인 인원(10명)을 최소화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진안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안군은 상반기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자 직업능력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년 배움 1인 1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군민들에게 배움을 통한 학습의 즐거움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의가 끝난 뒤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수강생 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광수/기자



남원시, 살맛나는 이웃사촌 아파트만들기 출발

더라우APT, 주민공동체 활성화 '라우 작은동아리' 등 운영

남원시는 2021 들썩들썩 살맛나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웃사촌 아파트학교'의 일환으로 진행할 생활문화 강좌 지원사업에 노암동 남명더라우 아파트를 선정하고 '라우 작은 동아리'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라우 작은 동아리는 총 4개 과정으로 중장년 건강지킴이, 식물집사 홈가드닝, 줄김(환경살림 몸살림), 똑딱 공예반으로 각 과정별 3번씩 동아리 활동이 펼쳐진다.

중장년 건강지킴이 동아리는 건강한 홈 커피 마스터 과정으로 진행된다. 홈 바리스타1급 자격증을 보유한 센터 마을활동지원가의 진행으로 8월 24일 첫 커피를 내렸으며 40~60대 입주주민들이 커피의 역사와 기원, 좋은 원두 구분법, 원두 분쇄와 내리기 수업에 참여하여 향긋한 커피향과 동아리방의 열기를 아파트 단지에 가득 전할 예정이다.

식물집사 홈가드닝 동아리는 8월 30일 오전 10시 더라우 입주주민 중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안개꽃 리스 만들기, 자연가습기 공기정화수 경식물, 다육정원 만들기 수업으로 옥사와 돌봄으로 지친 엄마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줄김(환경살림 몸살림) 동아리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스웨덴어 줄다(plocka up)와 영어단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

(plogging)' 봉사활동으로 걷거나 뛰면서 단지 안팎의 쓰레기를 줍기로 내 몸 건강뿐 아니라 내 주변, 이웃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뜻깊은 동아리로 운영된다.

똑딱 공예반 동아리도 8월 31일 오전 10시 공예와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입주주민들로 운영한다. 리사이클링 재활용 공예 과정으로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한 '덧밭 만들기', 유리병을 이용한 소이 캔들 만들기,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거품입욕제 만들기 수업으로 구성되어 자원을 절약하고 폐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활동을 잇는다.

서기서 남명더라우아파트 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건강하고 의미 있게 즐기는 동아리가 펼쳐질 것 같다. 입주주민들의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소통

하고 아파트 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웃사촌 아파트학교 - 라우 작은동아리'를 남명더라우에서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규용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장은 "올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암동 남명더라우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4개의 작은 동아리와 함께 9월 30일 진행할 아파트 소통·갈등·이해 '라우 토크쇼 안녕하세요', 10월 23일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반짝공동체 '라우 장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입주주민들이 서로 호흡하며 들썩들썩 살맛나는 남명더라우만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남출/기자

심 민 임실군수,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 강력 지시

심 민 임실군수가 태풍과 가을장마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강력 지시했다.

심 군수는 "제 12호 태풍 오미스르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 신속한 응급 복구와 농가들의 피해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는 소강상태이지만 다음 주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만큼,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홍수경보가 발효되는 등 강진면에 시우량 65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진면 소재지 일부 도로 등이 침수되어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임실군 12개 읍면에 평균 132mm의 많은 비로 인하여 도로 사면 유실 및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벼와 고추, 들깨 등 2.8ha 농작물 침수 및 매몰과 10 농가 5.2ha의 단동하우스 침수 등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군은 덩크트럭과 굴삭기를 동원해 도로 사면 유실 피해지역 등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에 나섰고, 현재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군은 현재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주민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산사태 취약지역과 붕괴 우려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지역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재난 예방 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재난피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침수 지역 등에 대한 작물 생육과 병해충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아직 가을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주민들이 풍수해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피해지역을 수시로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는 대민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 조동용 위원장 혁신도시 공공기관별 대표사업 청취와 상생협력당부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조동용(더불어민주당, 군산3)위원장은 26일 개최된 전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체 위원들과 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조 위원장은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경제성장 견인은 물론 사각지대 소외계층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전북도의회차원에서 이전기관과 도민이 함께 누릴 정주여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는 2015년 4월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지역주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어 18개 기관(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13, 유관기관 4) 부 기관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정기적 교류 및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기관별 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상생발전 협력사항을 논의 하고 있으며 도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조동용 위원장이 최하다.

한편 조동용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혁신도시를 찾아 이전기관별 노조위원장 및 후생복지담당 임직원과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김승일/기자



전남 김영록 지사, '공공의료 확충' 시도협 공동성명 이끌어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에게 국내 생산 그린수소 정부 지원 건의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 합의는 김 지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사실상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했으며, 전남도도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김 지사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정부와 의료계 등 이

해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했다. 그 결과 지역공공의료 확대와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시도협 차원의 공동성명으로 오는 11월 이후 개최될 의정협 의제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총회에서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공동선언문을 시도협 차원에서 채택하고,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2050년 탄소중립 넷 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해 대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수소를 외국에서 수입 중인데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 그린수소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록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해달라"

이용섭 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서 제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제안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내용으로 채택됐다.

이용섭 시장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타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라며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에게 필수

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국·공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 및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부지 내에 1500억원을 투입해 총 350개 병상을 보유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이르면 오는 10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20대 대선 공약 정책 제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관련 추진사항 ▲진정한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 등도 논의됐다.

김덕윤기자

여름 대표 과일 '장성 포도 삼총사' 남시오!



명품 포도 산지로 유명한 장성군이 본격적인 포도 출하 시기를 앞둔 이목을 끈다. '포도의 여왕'으로 불리는 샤인머스켓을 비롯해 캠벨엘리, 자옥 등 인기 높은 품종들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무더운 날씨와 예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더욱 달콤한 맛과 진한 향을 지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샤인머스켓은 포도의 상큼함과 망고의 달콤함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명품 과일이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보관성도 우수하다. 장성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은 전라남도 우수 원예작물 품질평가 대상 수상(2019년)했을 정도로 그 품질에 정평이 나 있다.

캠벨엘리는 장성 포도의 만형 격인 품종이다. 40여 년 이상 꾸준히 재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농가의 높은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다. 새콤달콤한 맛을 지녔으며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건강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자옥은 껍질이 얇고 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 알만 입에 넣어도 입안 가득 풍성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 어린이와 젊은 층이 선호한다.

군 관계자는 "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부터 일교차가 커지며 장성 포도의 당도는 더욱 높아진다"면서 "광주·전남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인기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장성 지역의 포도 농가는 140여 농가 51헥타르(ha) 규모에 이른다. 특히 샤인머스켓 재배는 28ha로 전남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명품 '장성포도 삼총사'는 농협하나로마트와 남면로컬푸드직매장, 공판장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샤인머스켓 3만 5000원(2kg), 캠벨엘리 2만 5000원(3kg), 자옥 2만원(2kg)이다. 오는 28~29일 장성호수농산물박람회 찾으면 하반기 재개장 행사를 통해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오홍곤기자

강진군, '병영설성막걸리' 도암뽕잎막걸리 인기 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웰빙 주류가 각광받고 있는 시기에 강진의 '병영설성막걸리'와 '도암뽕잎막걸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병영설성막걸리는 60년 전통의 병영주조장에서 대한민국 식품명인 61호인 김건식 명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막걸리로 전통적인 기법을 통해 한들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수인산 아래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청정한 물을 원료로 해서 텃밭하지 않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깔끔한 뒷맛이 일품이다.

특히, 병영양조장의 전통주는 대한민국 우리술평의회(일반증류수) 대상을 비롯해 국내에서 8회, 해외에서도 2019년 벨기에 국제식품평의회 은상을 포함, 4회에 걸친 다양한 수상 실적을 갖고 있다.

도암뽕잎막걸리는 도암주조장에서 뽕나무의 뽕잎을 건조 후 250℃~300℃에서 20분 볶아서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8일간 발효시켜 종전의 텃밭한 맛을 배제해 맛이 시원하고 숙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뽕잎은 막걸리 효소와 궁합이 맞고 각기병과 몸이 붓는 증세, 뇌졸중, 동맥경화, 소갈증(당뇨병) 등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 과장은 "전통적 기법과 지역에서 나는 쌀을 원료로 정성들어 만든 병영 설성막걸리와 도암 뽕잎막걸리를 적극 추천한다"며 "강진의 막걸리가 지역 특산품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전통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나가고 싶다, 시로 표현한 곡성군 할머니의 마음

2021년 전국 성인문해시화전에서 특별상 수상

어휴 답답해
책가방 속 공책들이 꿈틀꿈틀

어휴 허리야
책 속에 책받침은 부스럭부스럭

어휴 감잡해
필통 속 연필들이 달그락달그락

(이하 생략)

다. 다행히 지금은 학습꾸러미를 보급하면서 비대면으로나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문해교육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 EBS 문해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하게 지원했다. 전국 성인문해시화전도 그 중의 하나다.

지난 6월 곡성군에서는 20명의 성인문해 학습자들이 시화작품을 제출했다. 작품들은 군, 시도, 교육부 심사와 대국민투표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게 됐다. 그 결과 곡성군에서는 구회남 씨가 특별상(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군 참가자가 최종 심사과 대국민 투표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회남 씨의 시는 '지금쯤 책상은 뭘하고 있을까. 나가고 싶다'라는 말로 마을회관에 있을 자신의 책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무리된다. 구 씨는 "이웃들과 문해교육 가서 웃고 떠들며 수업 들을 때가 그립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마을회관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상홍기자



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상품 지원

해남군은 지난 26일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우리신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에 전용 특별보증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특별보증이란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심사기준완화·보증료 우대·보증비용 우대 등을 반영해 운영하는 정책자금에 말한다.

해남군이 3,500만원을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인 3억5,000만원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은 해남우리신협에서 담보 없이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1%)와 대출 이자(2.9%)도 해남군이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은 이자 부담없이 대출금을 받아 2년간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남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 사회적경제기업에 특별 보증상품을 지원하는 금융분야와 각종 컨설팅, 홍보 및 고령 판로 구축을 지원하는 판로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군의회에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의를 얻어 금융지원을 위한 행정적 사전절차를 마쳤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윤영선해남우리신협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대표들도 함께해 따뜻한 동행을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상품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전용보증상품 지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상품 지원

대전시립박물관 '옛그림 속에서 거닐다' 강좌 진행

대전, 서울, 제주도, 평양, 중국 쑤저우(소주), 일본 에도 등 6개 도시 여행

2021 대전시립박물관 강좌

옛그림 속에서 거닐다

옛그림을 통해 살펴보는 도시의 역사와 풍경

- 9.9(화) 대전-서양미술사 100년 기념 특별 강연
- 9.16(화) 평양-조선 제1의 도시 평양사 탐방기
- 9.23(화) 제주도-일제강점기 때의 제주사
- 9.30(화) 중국 쑤저우(蘇州)-도시의 아름다움
- 10.7(화) 일본 에도-도시의 아름다움
- 10.14(화) 서울-조선의 수도

2021.9.9 - 10.14

매주 목요일 14:00-17:00 (연말연시 휴무)

대전시립박물관 2층 대강당

문의: 대전시립박물관 (041) 661-8097

대전시립박물관은 박물관 인문학 강좌 '옛 그림 속에서 거닐다'를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온라인 교육(ZOOM)으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6개 도시를 선정해 풍속화에서부터 근대 사진엽서까지 각 도시의 모습이 담긴 옛 그림들을 감상하며 해당 전문가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도시의 역사와 풍경을 살펴본다.

9월 9일 대전을 시작으로, 9월 16일 평양, 9월 23일 제주도, 9월 30일 중국 쑤저우(蘇州), 10월 7일 일본 에도, 마지막으로 10월 14일 서울을 거닐 계획이다.

강의 참여 신청은 대전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신청'란을 통해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강의 세부 커리큘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대전시립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외출이 제한된 요즘, 이번 강좌를 통해서 옛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도시를 마음껏 여행하는 간접 경험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우체국 원주사랑 체크카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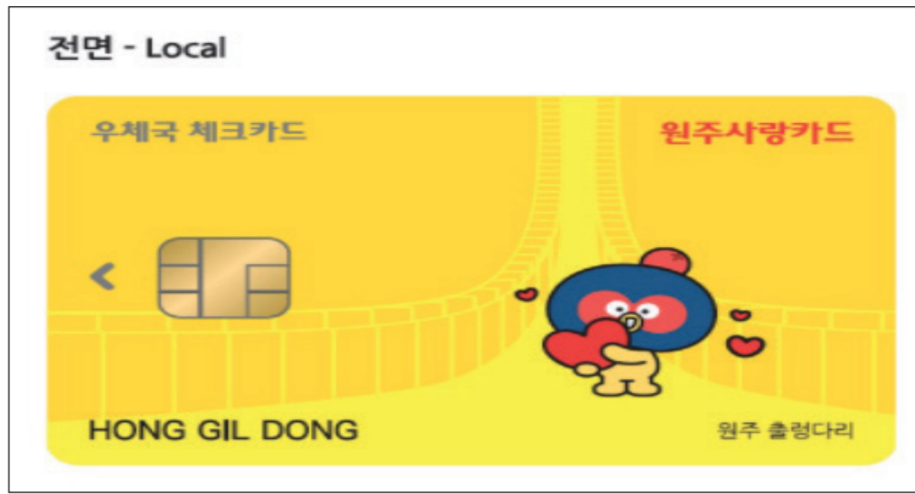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원주사랑상품권 '우체국 원주사랑 체크카드'가 출시된다.

원주시는 8월 27일 오전 10시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부터 '우체국 원주사랑 체크카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원주사랑카드는 지난 2월 26일 원주사랑 NH농협체크카드가 출시되었고, 7월 14일 우리체크카드가 추가로 출시된 이후 1만 2천여 명이 가입해 현재까지 48억 원이 판매됐다.

원주시는 다양한 카드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상품권 활성화와 지분을 확대하고자 카드 추가 발행을 추진해 왔다.

오는 3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앱에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자택이나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 원주우체국을 비롯한 관내 14개 우



체국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하다.

'우체국 원주사랑 체크카드'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도 진행된다. 9월 30일까지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규 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사랑카드 이용자 확대 및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체크카드 출시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전 동구, 관광 콘텐츠 발굴 위한 '공정관광 운영위원회' 개최

대전 동구는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동구 공정관광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동구 공정관광 위원회는 효율적인 공정관광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프로그램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10인으로 구성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위원 위촉식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동구 공정관광 발전 및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열띤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달 초 공모한 '2021 동구 공정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사업'에 신청한 4개 업체(단체)의 사업 내용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가 진행됐는데 구는 선정된 업체(단체)에 예산을 지원, 동구 지역 내 자연과 역사·문화 등 자원을 소재로 한 스토리 발굴 및 먹거리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용재 동구청 관광기획팀장은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라며 "공정관광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동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자원과 특색 있는 스토리를 명품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1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문예 공모전 개최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10월 10일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문예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문예공모전은 서로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9월 24일(금)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고마워'를 주제로 사진, 그림, 수기로 자유롭게 표현해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월 7일(목)부터 10월 11일(월)까지 삼척 장미공원 제방 길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가 제작한 작품도 전시되어 그동안 소외되고 미디어를 통해 왜곡되었던 정신질환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진국 센터장은 "이번 '#고마워'를 주제로 하는 공모전이 지역주민들의 지친 마음에 잠시나마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당사자의 작품 전시를 통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이웃임을 모든 참여자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2021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삼척시 문예 공모전

#고마워

사진·그림·수기 공모전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모분야: 1인 1작품 (사진, 그림, 수기)
"고마워"를 주제로 하여 자유롭게 표현

작품규격: 사진 - A3(297*420) 사이즈로 인화 가능한 JPG 파일(3MB이상) - 사진촬영정보 포함(원본 확인 위함)
그림 - A3(297*420) 사이즈 이상
수기 - 자유형식 - 원고 분량 A4(210*297) 2장 내외

접수기간: 2021. 08. 23.(월) ~ 09. 24.(금)

제출서류: 출품작,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방법: 강원도 삼척시 적중로 76(삼척시) 삼척시보건소 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 scmhc@naver.com

심사기준: 진정성, 주제적합성, 의미전달성, 작품활동성

발 표: 2021. 10. 05.(화)

시 상: 최우수작품상(1명) - 위너스 뎀소 12L(제습기)
우수작품상(1명) - LG 플라즈마 미니 에어컨(2명) - 우지 인스텍스 미니TV
참가상(20명) - 파라바게트 기프트폰

전 시: 2021. 10. 07.(목) ~ 10. 11.(월)
삼척시 장미공원 제방길

분 의: 033) 574-0190

공지사용 확인하기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산시, 치매극복 날 기념 '온라인 걷기 행사'

충남 서산시가 14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9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온라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행사는 치매 예방 및 극복 등 시민들의 치매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폰에 충청남도 체육회 어플인 '걷쥬'를 설치하고 '서산시 커뮤니티'에 가입 후 '치매극복의 날 기념 챌린지'에 참가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챌린지 신청 후 참가기간인 21일간 21만보 걷기 미션을 수행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념품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산시보건소 1층 치매안심센터로 본인이 방문·수령해야한다.

이웃을 시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운동은 인지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을 돕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2021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 온라인 걷기 행사

우리지역 21만보 걷자!

대상: 서산시민 누구나

참가기간: 9월 6일 ~ 9월 26일까지(21일간)

참여방법: ① 스마트폰에 '걷쥬' 앱 설치
② '서산시 커뮤니티' 가입
③ '치매극복의 날 기념 챌린지'에 참가 신청
④ 21일간 우리지역 21만보 걷기

선착순: 10월 4일 ~ 10일까지 500명 선착순 기념품 제공
서산시보건소1층 치매안심센터 방문 수령

문의: 서산시보건소 ☎(041) 661-8097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어요!"

홍성소방서, '불 나면 대피 먼저' 홍보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불나면 대피 먼저' 집중 홍보에 나섰다.

최근 화재는 과거와 달리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 증가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짧아져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 후 대피가 어려워 피해

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SNS 등을 통해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무리한 초기 화재 진화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불이 나면 '대피 먼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대피할 때 인명 손실 예방을 위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

2. 대피할 때 비상구 사용

3.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4. 대피할 때 119 화재 신고



서형호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 최근 보은군을 방문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 농가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서형호 원장은 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1년 주요 중점 추진사업과 당면 영농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도 보은의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 원장은 보은읍 강산리에 소재한 서병일 대추농장과 삼승면

탄금리에 소재한 윤봉수 사과농장을 방문했다.

서병일 농가는 대추 비가림 하우스 0.4ha에 대추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농약으로부터 약해를 최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노동력 절감을 통한 소득을 증대하고 있으며, 윤봉수 농가는 엔비사와 0.29ha에 햇빛차단 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이다.

서형호 원장은 "수확기까지 과원 관리를 철저히 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며, "경쟁력 있는 농가를 집중 육성해서 보은의 농업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한 정성혁 보은군수는 보은군 농업을 위해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건의하고 함께 협력해 가기로 했다.

최만식/기자

보은군 서형호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보은군 영농현장 방문 격려

보은군 서형호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 최근 보은군을 방문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 농가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서형호 원장은 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1년 주요 중점 추진사업과 당면 영농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도 보은의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 원장은 보은읍 강산리에 소재한 서병일 대추농장과 삼승면 탄금리에 소재한 윤봉수 사과농장을 방문했다.

서병일 농가는 대추 비가림 하우스 0.4ha에 대추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농약으로부터 약해를 최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노동력 절감을 통한 소득을 증대하고 있으며, 윤봉수 농가는 엔비사와 0.29ha에 햇빛차단 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이다.

서형호 원장은 "수확기까지 과원 관리를 철저히 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며, "경쟁력 있는 농가를 집중 육성해서 보은의 농업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한 정성혁 보은군수는 보은군 농업을 위해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건의하고 함께 협력해 가기로 했다.

고정화/기자

권락용 경기도의원, “관광세 도입,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 필요”

2021 고양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포럼’ 패널 참석

권락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지난 2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고양데스티네이션 위크」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여 지역 관광산업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아시아 최초의 마이스산업 관련 국제 회의로 이번 회의는 위드 코로나시대, 뉴노멀 시대의 마이스 산업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MICE 전문가 및 교수,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내 대표적 MICE 포럼이다.

‘경기 마이스(MICE) 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권락용 의원은 마이스 전문가로서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에 패널로 참가하여 관광세와 DMO(목적지 마케팅 기구)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성장과 마이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베니스, 바르셀로나와 마요르카 등 유럽의 유명 관광지들이 관광세 도입을 하여 관광 자원을 보전하고 가꾸어가는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우리나라도 천천히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제도 도입에 대한 위험소지, 그리고 코로나 시국의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이란 전제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백현 MICE 경우 주민들의 의견요구를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하여 진행하였고, 주민과 관계자 미팅 등 DMO와 유사한 마을 추진체가 이미 진행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동에는 더욱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원하는 것이 DMO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전했다.

이어 백현MICE의 경우 공모를 통해 2021년 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SPC구성을 마치고 이후 감정평가와 토지매입 등 개발에 대한 본격 추진이 이뤄지는 만큼 강력한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지자체 기관과 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마케팅과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DMO를 통해 지역주도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에 김철희 임명

서울시는 미래청년기획단장에 김철희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2021.8.27.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난 7월 공모 실시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미래지향 청년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청년주도 미래변화 대응 사업 및 발굴 추진, ▲생활권 기반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실질적 청년참여 시정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한다.

신임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임팩트활동을 수행한 경험과 청년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전문가로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서 역할 수행에 적임자라는 평이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수립 및 실행 경



임택수 청주부시장, 하계U대회 충청권 유치 응원 챌린지 동참

스포츠로 하나 되어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 드높이길 기대



임택수 청주부시장은 26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공동유치를 위한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지명으로 참여한 이번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027 하계U대회 유치 신청도시인 충청권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에 대한 시민의 유치 열정과 의지를 이어나가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작했다.

임택수 청주부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어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하며, 하계U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적극 응원하겠다”이라고 밝히며 다음 참가자로 박중근 충주부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하계U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세계 대학체육 경기대회이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각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국제 종합경기 대회유치 시 지역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 전남신용보증재단 감사패 받아

소상공인 활성화 노력 인정, 특례보증 패키지 등 지원 다채

명현관 해남군수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남신보는 2001년 설립된 공적 금융기관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라남도 유관 기관으로 해남군이 감사패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남군은 도내(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전담팀을 조직·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담보·저신용 등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대출을 위해 특례보증 3종 패키지(대출, 보증수수료, 이자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카드수수료,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온라인마케팅



충주시 박중근 부시장,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응원"



박중근 충주시 부시장이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한 응원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로

부터 공동 유치를 승인받았다.

박중근 충주시 부시장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충청권 공동 유치를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응원한다”며, “반드시 유치하여 충청권에서 대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NH농협은행으로부터 선별진료소 격려물품 전달 받아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26일 오후 4시, 구청장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의료진 및 근무자 격려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현재 강동구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강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암사(암사역사공원 주차장) ▲고덕(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옆 노상주차장) 2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근무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하남 호반써밋 에듀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감사패 수상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하남 호반써밋 에듀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태현 하남 호반써밋 에듀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27일 하남시의회에서 아파트 통학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강성삼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태현 회장은 “강성삼 부의장님은 하남 호반써밋 에듀파크 건설 과정에서 아파트 브랜드 변경, 초등학교 통학 환경 개선, 도로명주소 부



노을빛 아름다운 인천, 음악에 물들다. '2021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커밍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10월9일부터10일, 온라인 생중계

인천광역시시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음악축제 명성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음악축제는 ▲국내 최고의 도심 속 아웃도어 축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10월9일~10월10일)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펜타 유스타' (7월~9월) ▲인천의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는 '펜타포트 라이브 스테이지' (8월~9월) ▲인천 지역내 라이브 클럽에서 진행되는 '펜타포트 라이브 클럽파티' (8월~9월)로 진행된다.

지난 200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의 핵심인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10월 9일(토)~10일(일) 2일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360도 VR 중계, 음악 전문가의 해설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시도해 온라인 관객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해외 아티스트들의 경우 입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지 녹화공연 영상을 송출한다.

국내 출연진은 폭넓은 장르적 스펙트럼과 호소력 짙은 보컬로 다양한 창법을 구사하는 이승환, 30년간 대중음악계 최정상 프로듀서 윤상, 달콤한 멜로디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심선치(10CM), 그리고 데이브레이크(DAYBREAK), 적재, 아도이(ADOY), 더 발룬티어스(The Volunteers), 이날치(LEENALCHI), 엔플라잉(N.Flying), 정홍일, 김사월, 매서드(Method), 실리카

겔(Silica Gel), 너드커넥션(Nerd Connection)이 출연하며, 해외출연진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금년에는 무대 앞에서 환호하는 관중과 함께 현장공연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작년에 이어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표 음악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 위로와 문화적 감동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부산시, "마! 개안타" 2021 부산 실패박람회 개최



부산시는 '2021 부산 실패박람회'를 오는 29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자산화하여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개최한 행사이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거리두기 4단계라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사전 무관중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아티스트 공연, 토크쇼 '마! 개안쇼'(개그맨 송준근 출연), 시민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정책결과 발표 등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LG헬로비전 부산영상센터에서 진행되며, 부산실패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신청시 누구나 줌(ZOOM)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영상은 다음달 10일 0시부터 박람회 홈페이지, LG 헬로비전 부산방

송, 바다TV,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된다.

이기중 부산시 협치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실패가 곧 패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관중 비대면 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릴레이 응원날개 챌린지 캠페인을 연말까지 계속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실패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사회적 자산화를 통한 재도전을 응원하는 SNS캠페인으로, 지난 25일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첫 주자로 참여하여 챌린지 시작을 알렸다.

특히,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개그맨 김준호를 시작으로, 김재욱, 김대범 등 유명 개그맨 10여 명이 적극 동참했다.

남궁영기자

순천시 조곡동, 우리동네 특별한 '동천 버드나무 마켓' 운영

오늘 더 한발짝 가까이, 제로웨이스트 실천 현장으로

순천시 조곡동은 오는 28일 조곡저류지(구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곡동의 역사와 매력을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 '동천 버드나무 마켓'을 운영한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우리동네'다. 우리동네를 소개하고, 특색있는 행사를 알리며 우리동네와 결이 닿은 셀러가 참여하는 친환경 마켓, 그리고 동천변 일원 버드나무가 들려주는 자연과 어울리는 노래들로 이번 마켓을 준비했다.

그뿐만, 늘봄, 들꽃갤러리, 소꿉, 손습, 아이코, 아줌찬이, 일상모과, 함께에듀 등 9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결이 닿은 셀러 그리고 동네가게가 함께 합니다', 조곡동과 마을상점을 알리는 '우리동네 조곡동을 소개합니다', 종이팩 10개를 가져오면 친환경 경키트로 교환해주는 '오늘 더 특별하게 밀크로드 교환소가 열린다'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마켓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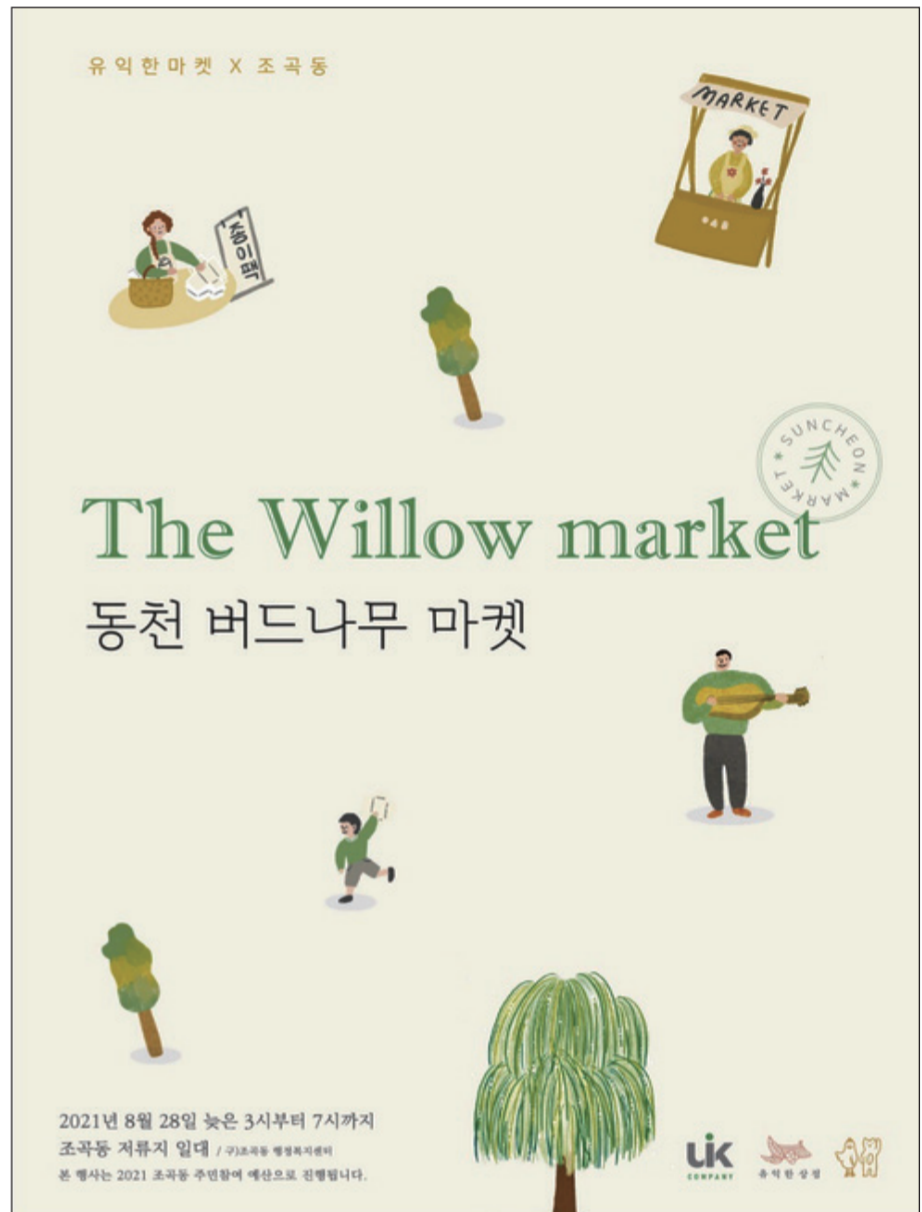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최근 하루 평균 네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장 주변 방역소독, 참여자 발열체크, 명부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안심 행사로 진행된다.

이선화 조곡동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시대에 체택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되는 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과 회수율을 높여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제로웨이스트'가 조곡동에서 시작하여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리마켓에서 조곡동 주민총회 홍보 부스를 공동 운영한다. 조곡동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환원사업들을 홍보하고, 오는 9월 7일 예정된 조곡동 주민총회를 알려 총회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만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로 공존' 공모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지역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9월 2일까지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로 공존' 공모를 진행한다.

'예술로 공존'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안양' 내 신진예술가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제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예술 활동이며, 지원대상은 안양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만19세부터 만39세(2002년~1982년생)인 신진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극예술, 무용, 음악, 전통 등 ▲공연분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시각분야, 문예평론집, 문

학창작집 출간 발표행사 등 ▲문학분야, 예술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 등 ▲기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지원금은 4천만 원이며, 개인(단체)당 최고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는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28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양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위축된 예술 활동의 마중물이 되어 활성화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공감하며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베르디가 직접 지휘했던 무대에 돌아온 아이다를 스크린에서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라 스칼라(아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3월부터 (배시시 콘서트 On Live) 등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기반의 콘서트 제공을 시도해 온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 시네마 라이브(Cinema Live)형 공연실황 상영을 오페라 장르까지 확대하여 선보인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발맞춘 관객개발 시리즈로,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극장과 페스티벌의 작품을 작곡가별로 큐레이션을해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Cine Opera Choice))라는 타이틀로 2021년 베르디 편, 2022년 푸치니 편, 2023년 모차르트 편에 걸쳐 장기 기획해 상영할 예정이다.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의 유명 프로덕션 오페라를 만나보는 기획으로 주목받은 (재)부산문화회관의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는 5월 1일 메트로폴리탄오페라(Metropolitan Opera, The Met) <라 트라비아타>, 6월 12일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의 2019년 공연작 <리콜레토>에 이어, 9월에는 라 스칼라의 <아이다>를 선보인다.

베르디가 직접 지휘했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지휘봉을 쥐는 주빈 메타와 미니멀한 무대 위에서도 잠입한 연출을 선보이는 페터 슈타인의 시너지를 감상할 수 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아니타 라흐벨리쉬빌리)의 시종이 된 아이다를 크리스틴 루이스가 맡아 조곡의 적장인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파비오 사르토리)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절절하게 그린다.

상영장소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이며,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한 온라인 예매와 고객센터(Tel. 051-607-6000)를 통한 전화예매로 가능하다.

문의 : Tel. 051-607-6000.

남궁영기자



2021 중구문화의전당 - 어린이명작무대 II '어린이뮤지컬 무적의 삼총사'

울산 중구문화의전당이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관객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명작무대 시리즈'를 진행한다.

중구문화의전당은 올해 어린이 관객을 위해 교육적인 내용에 웃음과 재미를 더한 뮤지컬 2편, 무용극 1편, 연극 1편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 프로그램 4편을 편성했다.

그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가 오는 28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총 2회 중구 문화의전당 합월홀 무대에 오른다. '무적의 삼총사'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제작한 극단 학전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미국에서 살다 온 초등학교 4학년 써니가 새로 사귀 친구들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방학이 되어도 학원이나 갈 뿐 신나는 일도 없고, 같이 놀 친구도 없어 외롭고 심심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던 아이들은 돈을 뺏고 협박하는 상급생을 통쾌하게 물리치며 삼총사로 뭉치게 된다.

이번 공연은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겪는 일과 진지한 대화들, 어른들이 없는 집안에서 놀이를 하는 풍경 등과 함께 써니, 풍이, 치나가 '무적의 삼총사'로 변모하는 과정이 라이브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무적의 삼총사'는 월간 한국 연극 선정 '2009 공연 베스트 7'에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작품이 지닌 교육적 메시지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연이기도 하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1만 5천 원으로 공연 당일에는 공연 1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김기현기자



경북도, 농지지 말고 잡(Job)으세요! 좋은 일자리(Great-Job) 기회!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온·오프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

경상북도는 지역의 우수기업을 알리고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극도로 위축된 지역 채용시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채용정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장구로 효과적인 채용박람회를 준비했다.

먼저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이달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여 동안 경상북도 비대면 채용 박람회 웹사이트와 국내 유명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 특별 개설된 경상북도 전문 채용관에서 진행한다.

현장박람회는 방역 지침에 대응해 행사장 상주 인원은 전원 사전 PCR 검사를 마치고, 출입인원은 50명 미만으로 통제하는 소규모 박람회로 운영하며, 30일 구미를 시작으로 포항, 경산, 안동 등 도내 권역별 4개 주요 도시 및 대구와 서울까지 총 6

개 도시에서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 박람회로 인한 참가 제한을 보완하고 현장 박람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일정마다 오후 3시부터 유튜브(YouTube) 생중계(경북 채용박람회 검색)를 통해 기업 채용설명회를 라이브로 송출한다.

세부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온라인 채용 박람회 웹사이트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 우수기업의 홍보 콘텐츠를 탑재하여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취업 교육 콘텐츠로 면접 교육 및 취업컨설팅관을 운영한다.

특히 국내 최대 잡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연계했으며, 우수기업 10개 사를 잡코리아 슈퍼 기업관에 등재해 전국의 구직자들에게 경북의 우수기업을 널리 알리는 등 기업 홍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장박람회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면 부스 및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부스를 포함해 총 12개의 기업 채용 부스를 운영하며, 채용직무에 대한 소개와 현장면접을 통해 입사직원을 돕는다.

또한, 지문 적성관(지문을 통해 자신의 직무 적합도 확인), 이미지 메이킹관(신뢰감 주는 메이크업, 헤어

연출 및 시연), 무료 사진 촬영관(이미지메이킹 후 입사지원서 사진촬영 지원) 등의 이벤트관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취업 컨설팅관, 비대면 모의면접 체험관도 운영한다.

Youtube 채널(경상북도 채용박람회)을 활용한 기업 채용 설명회 생중계는 전문MC의 진행으로 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출연해, 회사의 현황과 비전, 중점 추진 사업, 채용프로세스 및 인사담당자들의 성향까지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참여자 호응을 높이기 위해 문제·정답 기프티콘 이벤트도 가미한다.

특히 서울 행사에는 청년층에 희망을 전해줄 주요 셀럽의 강연을 준비해 취업마인드를 고취하고 서울 구직자들의 참여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상황에 철저히 대응해 대면 행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갖춰 채용박람회를 추진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이 능력 있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구직 청년은 지역의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허 기술 실시권 이전으로 인한 수입 창출로 민·관 상생협력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개발된 'IoT 진동감지 위험예측 시스템' 특허 2건에 대해 이셀㈜, ㈜케이아이와 특허권 기술 실시권 및 기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대상 특허명은 「지하공동구 고장 예방 방법 및 장치」 등 2건으로 전국 최초 지하구조물에 IoT진동감지센서(진동, 온·습도)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안전사고를 조기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며, 이셀㈜, ㈜케이아이와 약 2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올 6월 공동특허 2건을 등록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기업에게 기술 실시

권을 이전하고 특허 관련 매출의 일부가 공단의 수입이 되는 민·관 상생 우수사례로, 이 외에도 센서의 고도화 개발, 빅데이터 관리 등 꾸준한 업무 협조를 약속하면서 스마트 공동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계용준 이사장은 "공단은 공단과 민간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과의 공생 가치를 추구하는 한편,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분위기에 조성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김세기/기자

충남도 "혁신도시 완성 위해 공공기관 조속 이전 필요"

양승조 지사,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시도 제안사항 통해 강조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 등에 대한 잇단 지원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조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세종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건의 △연차2 연합 가입 협조 요청 등 3개 제안사항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조류의 불균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로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인구 역전 시점을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12개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전 방지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등 한층 강화된 발전 정책 추진으로 혁신도시를 실질적인 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 박명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유명민 비서실장 등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공

공기관 조속 이전을 건의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또 같은 달 9일에는 제2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대전·세종시장, 충북도지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감사원 위원장을 만나 충남혁신

도시 발전계획을 설명한 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연차2연합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심각성 확산으로 134개국에서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등 세계가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 평등권을 위한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과의 협력성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교육비 차액 보조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화를 건의했다.

전국 10개 시도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소개, △20대 대선공약 정책제안 추진사항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 9개 안건 보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고정화/기자

"인생 제2막 경북과 함께"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경북 귀어이론교육(온라인) 개설

귀어 어렵지 않아요, 귀어 知彼知己!

경상북도(재) 환동해산업연구원 내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경북으로 귀어유도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론교육(온라인)을 개설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귀어 관련 정보 획득 및 집체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귀어 관심자와 귀어 희망자를 위해 입문과제인 경북 귀어 이론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귀어전문가의 정책교육 및 우수 귀어인과 어촌계장 등 실제 어업종사자의 인터뷰를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경북 어촌계현황, 어선어업, 귀어사례, 수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와 SNS 마케팅 등 귀어 희망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귀어이론교육(온라인) 수강방법은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가입 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진

행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이수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귀어 정책자금 사업대상자의 의무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이수 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경북으로 귀어귀촌 하고자 하는 귀어 희망자들과 어촌마을을 위해 경북도와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어촌소멸 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전남도, 국가 수소산업 중심지 도약 속도

전라남도가 국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전남 수소산업 육성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 수소산업 육성 TF팀'은 수소경제시대 에너지대체 전환 정책 대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글로벌 그린에너지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향후 수소경제시대에 수소가 산업 전반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산업부는 수소무역을 관장하는 조직을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남도는 수소산업 분야와 연관이 있는 도청 11개 과 15개 팀을 비롯해 3개 유관기관 등 총 22명으로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수소연료전지발전허가, 친환경수소수송관, 수소드론, 수소트

램, 수소차·충전소 보급 등을 담당하는 인프라구축반 ▲한국에너지공단,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중심의 연구개발반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특화단지 조성을 담당하는 총괄반, 3개 반으로 편성됐다.

전남도는 TF팀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부 수소산업 정책에 대응하고,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소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한국에너지공단 수소전문인력 등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며 "에너지공단 등 수소산업 전문기관과 전남도 연관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TF 조직도 탄탄히 구성해 국가 수소경제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강원도, 청년창업 지원 위한 '로컬벤처 지원 드림팀' 출범

강원도는 자연과 문화, 역사, 라이프 스타일 등 지역의 고유 가치로 창의적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로컬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 로컬벤처기업 드림팀'을 구성,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위촉식은 8월 27일 오후 2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며 이번에 구성된 '강원 로컬벤처기업 드림팀'은 ①외부전문가 그룹과 ②성공 창업가 그룹으로 구성되며, 도내 로컬벤처기업들이 창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업에 드림팀 멘토를 1:1로 매칭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드림팀'은 행정·회계·세무·법률·유통·마케팅·컨

축·설계·디자인·부동산 등 창업과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29개 분야 총 41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 직후 드림팀은 관내 로컬벤처기업(유기농 카페, 춘천시 신북읍 소재)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창업스토리와 경영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향후 로컬벤처기업 육성 사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그동안 로컬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본 결과 창업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드림팀 구성을 계획하게 되었다."며, "로컬벤처기업들이 창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윈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드림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드림팀 인력풀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월 로컬벤처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이를 적극 반영하

여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동원/기자

새 예능 '위대한 집콕 연구소' 강호동-김준현, 첫 투샷

육봉 선생 강호동 X 발굴 장인 김준현, “올 것이 왔다”



채널S 새 예능 프로그램 '위대한 집콕 연구소' MC 강호동과 MC 김준현의 첫 대면 현상이 포착돼 시선을 모은다.

대칼코마니처럼 닮은 두 사람의 모습부터 범상치 않은 케미가 기대되는 가운데, 강호동과 함께한 김준현은 “올 것이 왔다”라며 이들의 특별한 만남을 더욱 기대케 만든다.

첫 게스트인 먹방 크리에이터 허밥과 야식이의 먹성에 제대로 놀란 '육봉 선생' 강호동과 '발굴 장인' 김준현은 “먹는 얘기로 위촉되기는 처음”이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오는 26일 저녁 8시 채널S에서 첫 방송되는 '위대한 집콕 연구소'에서는 MC 강호동과 MC 김준현의 역사적인 투 샷이 공개된다.

채널S '위대한 집콕 연구소'는 코로나 시대,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오늘 뭐 먹지?'라는 고민이 깊

어진 가운데 연에게 최고의 요리 장인 강호동, 김준현, 이특이 실제 판매되는 다양한 '밀키트'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적인 한 방' 레시피로 세상 어디에도 없던 특별한 요리를 탄생시키는 쿡 버라이어티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MC 강호동과 MC 김준현의 첫 만남 현상이 담겨 시선을 모은다. 마치 강호동을 잡으러 온 듯 짝꿍 등장한 김준현의 모습에 흥분백산한 강호동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100% 싱크로율로 닮은 꼴 비주얼을 자랑하는 강호동과 김준현의 케미가 벌써부터 기대를 끌어올린다.

김준현을 본 강호동은 “머신 129!”를 외치며 반가워했고, 김준현은 “올 것이 왔다”라며 강호동과 함께하는 '위대한 집콕 연구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두 사람의 케미와 대결이 어떤 재미를 선사해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유주/기자



샤이니 키, '헤이트 댓' 30일 발매!

그룹 '샤이니' 키와 '소녀시대' 태연이 듀엣곡으로 입을 맞춘다.

26일 자정 샤이니 공식 SNS 계정에 키와 태연의 모습이 담긴 '헤이트 댓(Hate that...)' 티저 이미지가 게재됐다. 키의 신곡 '헤이트 댓'은 센터멘탈한 기타 선율과 세련된 리듬감이 인상적인 알앤비(R&B) 장르 곡이다.

가사에는 이별 후 상대가 자신을 잊은 채 잘 지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독백 형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이번 곡은 소녀시대 태연이 피쳐링으로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다. 키의 섬세한 가창과 태연의 애절한 음색이 조화를 이뤄 완성도를 더했다.

최근 두 사람은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유쾌한 남매 케미를 보여주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한편, 키의 선공개 싱글 '헤이트 댓'은 오는 3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최재은/기자

뮤지컬 '멸화군' 불꽃처럼 강렬한 캐릭터 포스터 공개!

“나는 믿는다. 나의 힘을, 나의 동료들, 나의 사명을.”

오는 10월, 대학로 TOM1관에서 초연되는 뮤지컬 '멸화군'(제작: 시작프로덕션㈜)이 8월 24일 프리뷰 티켓오픈에 앞서 전 출연진 13인의 강렬한 캐릭터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레드&블랙을 메인 컬러로 현대적인 느낌의 불을 표현했다. 여기에 배우들의 깊이 있는 캐릭터 연기가 더해져 뮤지컬 '멸화군'의 강렬한 매력을 담아 내며 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오랜 시간 진행된 촬영이었지만, 밝은 촬영장 분위기 속에 배우들은 촬영 내내 캐릭터에 몰두하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불을 끄는 것이 아닌, 불을 멸하는 멸화군을 만들겠습니다!'

'중립'역의 이경수, 박민성, 정원영은 신념을 지키고자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게 된 멸화군 대장의 모습을 진중하고 무게감 있게 표현했다.

캐릭터 포스터 속 이경수는 촘촘한 감정연기를 바탕으로 여유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멸화군 대장을 연기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민성은 신념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단단한 의지를 완벽하게 소화해, 눈빛만으로도 멸화군 대장으로서의 감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던 정원영은 카메라 앞에서는 더욱 성숙해진 눈빛을 선보여 그가 연기할 중립의 모습을 기대케 했다.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천수'역의 황민수, 최재용, 황순중은 금화군이었던 형의 뒤를 이어 금화사에 입성한 열혈 신입의 모습을 각자의 매력으로 그려냈다.

황민수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형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은 길을 가 보기로 결심한 천수를 표현했다. 아직은 의심을 거두지 못한 표정에서 진정한 멸화군으로 거듭나는 순간의 반전 매력이 기대된다.

황순중은 순수한 눈빛으로 형의 죽음과 희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천수를 연기하며, 소년의 눈빛에 성장의 서사를 뒤흔어 담아냈다. 최재용은 차분한 눈빛 속에 멸화군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천수를 담아냈다.

현재를 잃은 슬픔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함을 표현해 내 앞으로의 연기를 더욱 기대케 했다.

'다시 한번 내게 돌아오길, 아름다운 아름다웠던 나의 봄날'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나아가는 비운의 여인 "연화"역의 최은실, 지세롬, 임예진은 비극적인 삶에 맞서는 모습을 3인 3색으로 그려냈다.



최은실은 평온함과 원망이 담긴 복잡한 감정의 눈빛과 치마를 움켜쥔 손으로 굳건한 의지를 그대로 담아냈다. 지세롬은 비극적인 운명에 조소하는 연화를 표현하며 운명에 저항하는 연화를 선보일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임예진은 운명을 거부하고 과거와는 달라진 본인 모습을 단호하게 표현하며 그가 연기할 연화의 모습에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와 함께 이동희와 임중우는 무뎠던 인상이지만 여러 마음을 가진 '강구' 역을 선한 눈빛에 담아냈고, 이종원과 김민성은 겉으로는 차갑게 대해도 속으로는 동료를 걱정하는 '철복'을 무표정에 깃든 격정적인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앞서 시작프로덕션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뮤지컬 '멸화군'의 메인 포스터는 지도가 불타며 드러나는 새벽녘의 도성의 모습과 채껴지지 않은 불꽃으로 한양에 발생한 전대 미문의 화재를 감각적으로 그려내어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창작 뮤지컬 '멸화군'은 조선시대

최만식/기자

베리베리, 컴백과 동시에 미국 아이튠즈 차트 1위!

베리베리(VERIVERY)가 컴백과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대박'을 예고했다.

베리베리는 지난 23일 여섯 번째 미니 앨범 'SERIES 'O' [ROUND 2 : HOLE]'을 발매한 후 주요 차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베리베리의 새 앨범 'SERIES 'O' [ROUND 2 : HOLE]'은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타이틀곡 'TRIGGER' 역시 미국 아이튠즈 케이팝 송 차트 1위에 오르며 글로벌한 베리베리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또한 'TRIGGER'는 아이튠즈 팝파트 2위, 전체 장르 3위에 오르는 등 놀라운 성적을 써내려가고 있다.

특히 베리베리는 'SERIES 'O' [ROUND 2 : HOLE]'로 미국에 이어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브라질, 홍콩, 네덜란드 등 총 8개 국가 앨범 차트 TOP10을 기록하는 등 해외 차트까지 석권하며 막강한 '차세대 케이팝 스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베리베리의 '한계없는 성장'을 담아낸 새 타이틀 곡 'TRIGGER'는 유니크 하고 중독성 강한 인트로 시그

니처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으로, 컴백과 동시에 국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글로벌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공적인 컴백을 알린 베리베리는 앞으로 음악방송 등에서 신곡 'TRIGGER'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최재은/기자



영화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 8월 26일 개봉 확정!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터키판 '이순신'의 최대 규모 전쟁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가 8월 26일 개봉한다.

영화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는 13세기, 셀주크 제국(현 터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카라타이'가 제국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최대 스케일 전쟁 액션. '카라타이'는 몽골과의 치열한 전쟁 중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적국의 최고의 장수로 마주한다.

위기에 처한 제국과 아들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영웅 '카라타이'의 대서사가 펼쳐진다.

'제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 '역사를 바꾼 위대한 영웅' 카피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제국을 향한 간절함을 돋보이게 하며 8월 26일 IPTV 최초개봉으로 강력한 액션을 선사할 예정이다.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는 터키 배우들의 연기력을 각인시켜 주었다. 몽골의 거친 침략에도 셀주크 제국을 지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던 강인한 여전사 '투르칸'역으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준 '버쿠 외즈베르크'는 작품을 통해 터키 유스 골든글로브 시상식 (Turkey Youth Awards)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에서 골든 스타상을 수상하였다.

'카라타이'의 아들 '쿠타이' 역을 맡았던 '알프렌 두이마즈'와 몽골 지배자 역 '유데르 오쿠르' 또한 남우주연상 골든 스타 후보로 올라 작품의 완성도와 배우들의 폭발적 연기력을 입증시키며 보는 내내 스크린을 압도할 예정이다.

잠시도 긴장감을 놓지 못할 최대 스케일 전쟁을 선사할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는 8월 26일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희/기자

'홈타운' 임태구, 드러난 섬뜩 광기!

tvN '홈타운'의 '최면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임태구의 압도적인 아우라가 보는 이들을 단숨에 빠져들게 한다.

2021년 하반기 웰메이드 기대작 tvN 새 수목드라마 '홈타운'은 1999년 사주사, 연이은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유재명 분)와 납치된 조카를 찾아 헤매는 여자(한예리 분)가 사상 최악의 테러범(임태구 분)에 맞서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비밀의 숲2'를 통해 탄탄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박현석 감독이 매가폰을 잡고 '믿고 보는 연기파 군단' 유재명(최형인 역), 한예리(조정현 역), 임태구(조경호 역)가 출연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그런 가운데 '홈타운' 측이 25일, '최면 티저 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단 15초만의 짧은 영상만으로도 눈을 땔 수 없는 폭발적인 흡입력을 자랑한다.

특히 임태구의 압도적인 아우라가 보는 이들을 빨아들여 그가 '조경호' 캐릭터로 펼칠 연연에 기대를 절로 높인다.

공개된 영상에는 수감복 차림의 임태구와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한예리 그리고 뒤집힌 여인의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임태구의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라는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

어올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 것인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특히 임태구는 존재만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해 예비 시청자들을 미스터리 스릴러 '홈타운'에 빠져들게 한다. 의증을 알 수 없는 표정 너머로 섬뜩한 광기가 느껴지고 복도를 가로지르는 임태구의 실루엣은 보는 이들을 얼어붙게 만든다.

여기에 임태구 특유의 허스키한 중저음 보이스가 미스터리함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과연 임태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며, 한예리가 꾸는 악몽과 임태구의 존재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본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tvN 새 수목드라마 '홈타운'은 오는 9월 22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한다.

현유주/기자



정동희/기자